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2009. 4

통권 154

한인뉴스 이메일 주소가
haninnews123@gmail.co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LGEIN 콜센터 어워드 영예



“모두가 만족한
LG 서비스”

기본에 충실한 철저한 고객감동서비스 결과



2009 콜센터 어워드(Call Center Award 2008)

인도네시아 고객만족협회(CCLS)가 1999년부터 우수 브랜드 업체를 대상,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 상담원 친절도, 서비스 질 등 서비스 품질 지수를 조사 평가하여 수상하는 권위있는 어워드이다.

- ① 최우수 수출기업상, 최우수 투자기업상, 최우수 디자인상에 이은 금번 수상으로 **인니 국민브랜드**로서의 위상 구축
- ② 고객대응 서비스 향상 통한 모니터.홈서어터.양문형냉장고.세탁기.에어컨 **시장점유 1위** 고수
- ③ 올해 'One Stop Point' 개념의 LG 고객 콜센터 확대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CIC 365일	LG 고객 정보 센터, 365일		
	자카르타	(021) 727-99777	0-800-123-7777
	수라바야	(031) 549-0777	수신자부담

Visit Online Store
tokoLG.com





전세계 116개 도시 취항으로 더욱 편리해진 대한항공.
미주, 일본, 중국...어디로 가시더라도 가장 편리한 스케줄로 모십니다.
당신의 특별한 비행, 대한항공의 특별한 네트워크로 약속 드립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Network

외환은행

플라빠가딩출장소 개점

고객여러분의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 성장한 저희 인도네시아 외환은행이 Kelapa Gading 및 KBN 공단지역 소재 고객 여러분을 좀 더 가까이서 정성껏 모시고자 Kelapa Gading에 있는 Graha Rekso 빌딩(Ground Floor)에 Sub branch를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성심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점일 2009. 3. 19일 (목요일)

주 소 Graha Rekso Building, Ground Floor, Suite GR-W03
Jl. Bulevar Artha Gading Kav. A1, Sentra Bisnis Artha
Gading Kelapa Gading, Jakarta 14240

전 화 021-4585-6388 **FAX** 021-4585-6389

취급업무

- 통장개설, 입출금, 정기에(적)금
- 계좌이체, 국내외 송금
- 대출상담, 대출 및 수출입 관련 서류 송달



PT. Bank KEB Indonesia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문화회관'에서 우리사회가 문화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길 바라며 교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 가. 회원증 사본 제출
-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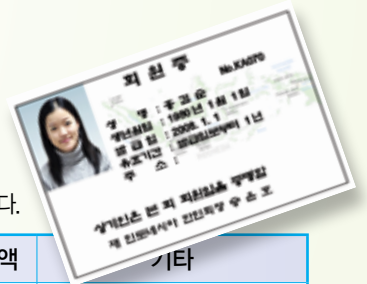


※한인회원가입 및 문화회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021-521-251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지정 가맹점 안내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 레스토랑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이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TER	10%	
장터 레스토랑	Jl. Raya Batavia Blok LC 08, No. 9-10 Kelapa Gading Jakarta Timur	4585-4302		10%	
뉴서울 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TER, BCA	5%	



알립니다

한인뉴스 이메일 주소가
haninnews123@gmail.com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 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



32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송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김남규,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aninnews123@gmail.com

http://www.innekorean.or.id

37



43



62

24



10 한인사회 소식

- 우리는 하나다! 단합된 아시아 한인회를!
- 한-인니 합작 조림사업 첫 삽 떠
-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부인회
- KOICA, 인도네시아에 양묘기술 전수
- 우리은행, 찌까랑 출장소 개점
- 월드 OKTA 동남아활성화 대회 개최
- 외환銀 인니 법인, 골라빠가딩 출장소 개설
- LG 전자 인니법인, '2009 콜센터 어워드' 수상
- 한류 관광마케팅, 코리안 나이트 열려
-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인니 개소
- 국제로터리클럽회장 인니 방문
- 지상파 DMB, 인니 진출 교두보 마련
- 교민 서예가 7인, 예술의 전당에 당당히 입성

23 이달의 詩 짝사랑

24 건강칼럼 온 가족 건강식품 Lidah buaya

26 특별기고 한국학 중심으로 비상, 가자마다 대학

29 제40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공모안내

30 출국세 관련 사항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32 시사포커스 12 문명(文明)과 원시(原始)가 공존하는 곳

37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병 돌림병 기념하는 리엵바다 제(祭)

40 유춘강의 긍정칼럼 드라이빙 미스터 하리스

42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43 우리짱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11

김연아, 한국야구대표팀

49 법률상식 중재(분쟁해결 제도)

53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44 한국말로 말해요 사랑과 행복

58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합리적 징계(懲戒) 관리

62 루피아와 세계 경제의 침체

63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4

66 BOOKS

68 MOVIES

69 경제 리포트

72 생활정보 가이드

76 4월 공지사항



‘우리는 하나다! 단합된 아시아 한인회를!!’

해마다 아시아 18개국 22개 지역 한인회 현, 전 회장단이 참가해서 각종 현안 논의와 각 국 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아시아 한인회 총 연합회’(회장:승은호) 총회 겸 아시아 한인회장 대회가 지난 3월25일~2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나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재 캄보디아 한인회(회장:김문백),연합회 태국 사무국 주관으로 개최 되었다.

연합회 승은호 회장을 비롯한 재외동포재단 금병목 기획이사, 한·캄 친선협회 이종혁 회장(국회의원),캄.한 친선협회 팀만다 회장, 12개 지역 아시아 각국 현, 전 회장단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주요 상정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 했는데 아시아 한인회 발전을 위한 유대강화 및 공동사업 건에서 태국의 김도연 회장이 제안한 아시아 네트워크 새로운 사이트 구축 설명에 참가자 모두가 공감했으며 추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키로 합의 했으며 모국 경제 불황 타개를 위한 방안, 재외동포 의료지원 문제, 경제, 문화, 체육 등 각국간의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 건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으며 경제, 문화, 체육 등 각국간의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 건도 아시아 네트워크가 실행되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주진키로 했다. 또한 김도연 태국 한인회장이 한인회 주요사업 성공사례를 발표해서 관심을 모았으며

2009,아시아 한인회 총 연합회 결의문 채택과 정관 재검토 및 확정 건,회장 단 및 임원선출 건, 차기총회 일정 장소 확정 건은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회장 대회 직전 임시총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했다.

행사 개최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 캄보디아 한인회 임원, 청년단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로 행사가 스마트하게 진행 되었으며 총회 개막식에 서 금병목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과 한.캄 친선 협회 이종혁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아울러 승은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국 간의 긴밀한 협조와 하나되는 마음으로 한인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회장단과 임원들이 열정적인 봉사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 했다.

그밖에 공식일정으로 캄보디아 재무부의 투자 설명회와 캄보디아 진출 기업인 캄코시티의 사업설명회와 주)유진 바이텍의 정수기 시스템 신기술 발표에 많은 참석자가 관심을 가졌다. 또한 캄보디아 한글학교 방문과 캄보디아 국회 상원 부의장, 시애틀 주지사 예방이 있었으며 공식만찬과 단합모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 겸 아시아 한인회장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난 4월 1일 인니 서부자바주 돌룩잠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후속조치로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와 인니 영림공사의 합작조림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조림행사가 있었다.

자바주에 여의도 면적의 380배에 달하는 10만 ha 조림지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지낸다.

이날 행사에는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까반 인니 산림부 장관, 안명수 공사 및 KOICA, 코트라, 코린도 그룹관계자와 300여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림기념행사와 민디(mindi)를 식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에서 까반 장관과 서동면 부회장, 안명수 공사는 인사말에서 향후 50만 ha의 조림사업을 위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까반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니국의 발전에 금번 조림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사

한-인니 합작 조림사업 첫 삽 떠

레가 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2006년 한국산림청과 인니 산림부간 50만 ha 조림협력 및 A/R CDM(탄소배출권 조림)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이번 사업은 국내 목재수요의 90%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한-인니 양국간 산림분야 교류협력 증진에 꾀한다는 점에서 이번 인니 조림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난 3월 최근 대체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목재 펄릿 산업의 원료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인니 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정광수 산림부 장관과 까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 인니현지법인(PT.KIFC) 법인장과 우픽(Uplik) 인니 영림공사 사장이 서명함으로써 체결됨에 따라 20만 ha의 조림지를 추가로 확보한 후 조림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한-인니 양국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 인니 법인 성인경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자바주의 대지를 외국에 할애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 대 정부’ 성격인 이번 조림사업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이번 조림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향후 인니국의 외국 조림사업유치에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미숙 제15대 부인회 회장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부인회 - 부인회, 자문/운영위원 총회 개최



신임 회장단

지난 3월 23일 대사관저에서는 제15대 재인니 한국부인회 자문/운영위원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총회는 50여명의 회원 및 invit이 참석한 가운데 식순에 의거 개회, 국민의례, 신입회장단 인사, 고문 및 자문위원/운영위원 소개, 구임원 감사패 전달, 2009~10 사업계획 발표, 상정안 부의, 폐회 등의 1부 순서와 이어 월화차 문화원 김명지 선생님의 행다시범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15대 부인회장으로 선출된 홍미숙 회장은 ‘30년의 역사가 있는 부인회를 보다 보람된 모임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인기업홍보책자 It's Korea 두번째 책자 발행과 외국인 대상 한국음식 요리경연대회 개최, 교민 친선 도모를 위한 취미활동반과 효도한마당 잔치, 친선골프 대회등의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 했다.

재인니한국부인회는 1972년 창설 후 초기에는 주로 대사관 공사 부인들이 회장을 맡아 운영해 오다가 1932년 처음으로 교민중에서 회장이 선출되었다. 초대

김정순 회장을 시작으로 2대 송복순, 13대 이래은, 14대 채영애, 현 15대 홍미숙 회장에 이르기까지 사회봉사활동 및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한인사회에 기여를 해오고 있다.

부인회 신임회장단

회장: 홍미숙 / 부회장: 김순희, 박순화, 이금색

총무: 류경희, 박성영, 이호순 / 서기: 양순금, 장은녕

/ 회계: 백봉주, 오영란



월화차문화원의 김명지 선생님이 행다시범을 보이고 있다.

제15대 부인회 홍미숙 회장 인사말 中

안녕하세요. 2009~10년 회장에 선출된 홍미숙입니다. 제가 벌써 15대 회장이니, 30년이란 역사가 있는 부인회이고, 그 전 초창기의 10년을 다시 합하면 40년의 나이가 된 한국 부인회 모임입니다. 이전 회장님들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이제까지 부인회를 이만큼이나 키워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보람된 모임이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원진, 그 다음은 여러분들 운영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이 부인회 모임에 애착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해나갈 사업 중에서 한인기업 홍보책자 제2집 제작이 있습니다. 전 임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제작하신 1집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좀 더 흥미롭고 새롭게 제2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인회 회칙 1장 1조 목적에 한인인 양국 간의 친선 및 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요리 만들기 대회도 이런 우리의 목적과 부합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총회 때 실시되는 장기자랑대회는 어려운 세계경제의 여파로 다소 영향이 있는 이곳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까 구상 중입니다.

KOICA, 인도네시아에 양묘기술 전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3.23(월) 보고르 롬핀 지역에 위치한 양묘센터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240만불 규모로 추진중인 “인도네시아 열대림 임목종자 관리 및 개발 사업”의 종자관리동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동 행사에는 Kaban 인도네시아 산림부장관, 한국대사관 안명수 공사, 이종선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및 양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롬핀 양묘센터의 우량 임목종자 개발 및 보급 역량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인도네시아 산림생 산성 증대 및 황폐지 복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05년 “임목개량 및 양묘장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동 사업은 3년간의 1차사업 수행기간 중 신종 묘목 개발 및 시험림 조성을 통해 깔리만탄 등 3개 지역 총 169ha 면적의 산림을 복구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어

2008년부터 시작된 열대림 임목종자 관리 및 개발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시험림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 Purwakarta 지역에 250ha 규모의 신규 시험림 조성, 종자관리동 신축 등 롬핀 양묘장의 역량 개발, 종자관리, 임목육종 및 토양분석 분야 전문가 파견, 인도네시아 산림부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 사업은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복구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효과적인 산림자원 활용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에 열대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 산림자원 부족국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50만ha조림을 위한 진출 및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본 사업으로 수집된 열대림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 제공함으로써 양국간 산림분야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의 행복을 더욱 크게”

- 우리은행, 찌까랑 출장소 개점

지난 3월12일(목요일) 우리은행 찌까랑 출장소가 찌까랑 톨 게이트 부근인 Commercial Center에 개점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한인회 대표 및 기업인 협의회 등에서 120여명의 인사가 참석 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대사관의 오송 공사는 축사를 통하여 교민 기업들이 많은 지역에 빠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길 기원하였으며, 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장도 교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간 만큼 어려운 금융위기에 힘든 기업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은행”이 되어 달라고 축사를 하였다.

한편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애를 써 온 우리은행은 2008년 7월 땅그랑 출장소 개점에 이어 2번 째인 찌까랑 출장소를 개점하였으며, 우리은행의 이민재 법인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공적인 위기극복을 확신하며 이제 2개의 출장소를 통하여 “고객님의 행복을 더욱 키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객들은 축하 화환 대신 “사랑의 쌀”로 개점 축하를 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병행



하여 주변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우리은행 측은 고객들께서 기부한 정성 어린 “사랑의 쌀”은 은행 제공분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에 기부 고객이름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찌까랑 출장소 : 김두영부장

전화: 021) 8983-5720

팩스 : 021) 8983-5721



월드옥타 전세계지회장

월드 OKTA 동남아활성화 대회 개최

지난 2월27일부터 3일간 자카르타에서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 OKTA) 동남아활성화 대회를 통해 70여 지회장들과 100여 회원들이 국제적 경제난극복위한 힘찬 재 출발을 다짐했다.

인도네시아 김우재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약 1,200여 한인업체가 진출해 있는 인니는 매년 120억 달러 수출 기록뿐만 아니라 월드 OKTA인니지회는 창립 2년 만에 100명의 우수한 차세대 리더를 배출하는 등 월드 OKTA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석화 월드 OKTA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World OKTA 동남아 활성화 대회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경제인들의 충분하고 다양한 경영 노하우로 신시장 개척과 난국을 극복할 전략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회장은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남아 활용방안과 월드 OKTA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경제위기의 근본이

유라고 진단하고 철저한 자기관리, 현금 유동성 확보, 고객의 니즈 분석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월드OKTA 조통제 상근부회장은 올해 주요 신규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요원 활용한 중소기업의 진출 방안 마련, 해외무역인의 KBC 지사와 사업통한 코트라와 연계하여 수출확대사업 구상을 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권병하 동남아협의회 회장은 회장직을 김우재 인니 지회장에게 인계하면서 열정과 각오로 각 지회와 회원의 단합과 경제극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동남아 월드옥타 협의회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타이완 국가의 동포 경제인들이 참여하고 있어 동남아권 경제성장에 맞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외환銀 인니 법인, 끌라빠가딩 출장소 개설

- 현지 진출 기업 및 교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은 19일 해외사업담당 변동희 본부장과 현지 한국 대사관 오 송 공사 및 한국기업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끌라빠가딩 출장소 개소 행사를 가졌다.

자카르타 동북쪽 20km에 위치한 끌라빠가딩 지역은 자카르타의 중심항인 판중뿌리옥 항구와 인접하고 보세수출공단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CJ, 미원, 한솔 등 한국계 물류회사와 교민업체 등 140 여개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어 입주기업 및 역내 교민들의 금융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007년 1월 찌카랑 출장소 개점에 이은 금번 끌라빠가딩 출장소 개설로 그 동안 자카르타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끌라빠가딩 소재 기업과 교민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1990년 국내 은행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영업중이다.



끌라빠가딩 출장소

주소 : Graha Rekso Building, Ground Fl, Suite GR-W03, Jl. Boulevard Artha Gading Kav.A1 Sentra Business Kelapa Gading
전화: 021) 4585-6388



LG 전자 인니법인, '2009 콜센터 어워드' 수상



LG 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이하 LGEIN)이 지난 3월 18일 인니고객만족협회(CCLS)가 주관한 '2009 콜센터 어워드'에서 우수 서비스상을 수상했다. LGEIN은 이번 '콜센터 어워드' 수상으로 2006-7년 최우수 수출기업상, 2008년 최우수 투자기업상, 2009년 최우수 디자인상을 등 인도네시아 국민브랜드로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 LG 이미지와 더불어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어워드를 주관한 CCLS는 1999년부터 우

수 브랜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지수를 매년 조사·평가하고 있는 권위있는 기관으로서 올해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 상담원 친절도, 서비스 질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고객의 만족지표가 판매의 중요 키워드로 커가고 있는 지금 제품 출시와 동시에 A/S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는 LGEIN은 고객대응 서비스 질 향상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모니터·홈시어터·양문형냉장고·세탁기·에어컨 분야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9곳의 직영서비스센터를 포함 160여 곳의 서비스센터와 3곳의 모니터 쇼룸, 1곳의 모바일 쇼룸을 두고 있는 LGEIN은 2008년 자카르타의 팡리마뿔람에 위치한 A/S센터·제품정보서비스·홍보와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One Stop Point' 개념의 LG 고객 콜센터를 오픈해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올해 콜센터 8곳과 7곳의 모바일 서비스센터와 확대 오픈해 LG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류 관광마케팅, 코리안 나이트 열려

한국 관광산업의 거대 잠재시장인 인도네시아를 공략하기 위한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의 인도네시아 로드쇼 'Korean Night' 행사가 지난 4월 1일과 3일 수라바야와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Korean Wave Comes to Indonesia”란 슬로건하에 인니 언론 방송사 대상 기자회견 및 현지 여행업체 대상 Travel Mart 그리고 만찬을 겸한 이번 코리안나이트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무슬림 방한시장과 인센티브시장 개척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한류의 불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특히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코리안 나이트 행사에는 200여 현지 여행업 관계자와 행사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십명의 일반인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장(양문수)는 원화 약세와 쇼핑투어의 강화등을 예로 들며 지금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며 보다 많은 인니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바랐다.

한편 싱가포르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가수 “리안”은 이번 코리안 나이트 행사에 동반, 만찬행사에서 최근 취입한 노래 3곡을 부르는 쇼케이스를 제주의 겨울을 배경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와 함께 선보여 아름다운 한국관광지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리안씨는 수라바야에서 한국문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지닌 인도네시아인 모임인 ‘한사랑’과의 만남에서 ‘한사랑’의 한국에 대한 관심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하며 금년 중 한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3개국어로 발매 될 3집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축하공연 중인 가수 리안

한류열기를 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방문자 수가 경제선진국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81,000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숫자로서 무슬림 시장개척을 위해 전국 곳곳에 할랄 식당을 개설하고 무슬림 사원과 기도실을 완비해 놓은 한국관광공사의 노력의 결실뿐만 아니라 보다 수월해진 한국비자취득, 인니 여행사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결실로 보여진다.



김신중 KORES 사장과 인니 광물 개발청장이 광물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인니 개소

- 한-인니 광물자원개발 협력 박차

지난 3월 6일 오후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빌딩 3층에서 인도네시아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방문한 KORES 김신중 사장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광물자원 개발 부문 국내외 현지 투자기업 및 관련자들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에너지 광물 개발 청장인 밤방 스띠아완씨가 참석하여, KORES 개소식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광물 자원 개발의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967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국영 자원개발 부문의 기업인 KORES는 현재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중국, 페루,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현지법인에 현지 법인 및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서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 우라늄 등 각종 천연 광물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신중 사장은 개소식에서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 특히 광업 부문의 잠재성이야 말로 KORES가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사무소를 개설하는 큰 이유이다”고 밝히며 “KORES의 역할은 광물 개발 한국기업을 위해 인니 광업지역 탐사활동을 포함하는 기술과 자금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KORES의 인니 진출과 관련, 스띠아완 청장은 “KORES의 진출로 인니 투자를 희망하는 한국의 광산 개발 기업들에게 명확한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한국투자자들의 현실적인 인니 제도 이해와 모든 규정 이행’이 매우 중요함을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KORES 자카르타 사무소는 향후 인도네시아 광물자원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KORES는 광업과 경제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원개발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니 광물 개발을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KORES의 중요한 역할이다.



국제로터리클럽회장 인니 방문



지난 3월 9일 그랜드 하이얏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세계 최대 민간 자원봉사 단체인 국제로터리클럽 이동건회장부부의 방문 환영만찬이 있었다. 이동건 부부그룹 회장은 설립 100년이 넘는 국제로터리클럽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회장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민간외교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인물이다.

국제로터리클럽은 세계 203개국의 3만2600여 개 클럽, 121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봉사단체로, 역점사업인 소아마비 박멸 운동을 비롯해 지구촌이 안고 있

는 보건, 기아, 문맹, 식수,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에는 1255개 클럽, 4만8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 일본,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회원보유국이며,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최대 기부국가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1년 임기의 회장으로 2년간 세계를 순방하면서 각국 정상들과 만나 재난구호 및 평화를 위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회장은 “로터리 회장은 가장 낮은 데서,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협력을 이끄는 자리”라며 “벽찬 가슴을 안고 로터리의 봉사정신이 더욱 꽃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는 과거 지구촌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당시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과 물질을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특히 이곳 인도네시아 최초로 한국인 기업인과 전문가들로 결성된 수디르만 로타리클럽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표명하였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무함마드 누 인도네시아 정부통신부 장관, 앞줄 왼쪽부터 성백무 PT SCK 사장, 서영주 KETI 원장, 하리 글로벌미디어그룹 회장, 아구스 PT DMN 사장.

“지상파 DMB”인니 진출 교두보 마련

- KETI, 인니 지상파 DMB 상용화 위한 MOU 체결 및 시연회 개최 -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한 지상파 DMB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본격 진출한다.

전자부품연구원(이하 KETI, 원장 서영주)은 지난 3월 7일 인니최대 방송 그룹인 Global Mediacom(회장 Hary Tanoesoedibjo), 인니 지상파 DMB사업을 실행하고 추진할 PT.DMN(사장 Agus Mulyanto)과 2006년부터 KETI 컨소시엄과 협조하여 인니에서 지상파 DMB 사업의 현지진출을 추진한 PT.SCK(사장 성백무)와 “인니 지상파 DMB 상용화를 위한 4자간 MOU”를 체결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유스프 칼라 인니 부통령에게 모바일 방송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지상파 DMB 기술을 시연했다.

Global Mediacom이 이번 MOU 체결 이후, 인니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배정받으면 KETI 컨소시엄과 PT.SCK가 제공하는 지상파 DMB 방송 시스템을 통해 상업방송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양국의 모바일 방송산업 관련 시스템 및 단말기 산업에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상파 DMB는 유럽방식에 비해 송출시스템의 가격경쟁력이 높고, 해당 방송을 볼 수 있는 수신단말기



도 휴대폰, 차량용 네비게이션, MP3 등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자, 사용자 양측 모두에게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어 이번 MOU 체결로 국내 지상파 DMB 기술이 인니에 상용화되면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KETI는 이번 기술시연회에서 시연현장을 카메라로 직접촬영,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DMB 핸드폰 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즉시 볼 수 있는 현장 Live 시연과 인니 방송국 RCTI의 현지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DMB 휴대폰을 통해 시연했다.



서예문인화대전 입상자 뒷줄 좌로부터 임채실, 김효경, 진만휘(IMAN), 박정은
아래줄 좌로부터 김영덕, 한현미, 이선우씨

교민 서예가 7인, 예술의 전당에 당당히 입성

-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에서 김영덕, 이선우씨 특선 외 5인 입선 -

예술에 전당 서예박물관에 인도네시아 교포 7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제7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에 입상한 김영덕, 이선우, 김효경, 박정은, 임채실, 진만휘, 한현미씨 등 자필묵연 회원들이다. 예술의 전당이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높은 경쟁과 까다로운 심의를 통과해야만 무대에 설 수 있거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이니 인니 교포들 모두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출품작 숫자가 1,405점이나 되는 속에서 당당히 당선된 이들 교포들의 작품은 2009년 5월 12일~18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2009년 5월 12일(화요일 오후 4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한편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회에 출품작 숫자가 매우 많은 것은 어느 특정단체나 계파에 소속되지 않고 대한민국 서단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 대회의 도드라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이는 양질의 작품과 좋은 작가를 배출하는 튼튼한 바탕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했다.

특별히 김영덕, 이선우씨의 작품은 한글서예 부문에서 당당히 특선에 선정되었으며,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진만휘(IMAN)씨는 외국인으로서는 한국의 공모전에 출품하여 당선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 작품은 오는 12월 제5회 자필묵연 정기전에 출품되어 자카르타 교포들께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작사랑

이영숙

잠에서 깨니
새벽 2시 35분
가슴이 짜-아 하도록
꿈결처럼 보고 싶다
아들 녀석이

녀석은 시드니에 가 있다
해준 것도 없는 데
별써 그 나이 열 아홉
'엄마가 해주시는 뜨거운 밥이 먹고 싶어요...'

칙칙칙 치-익
아침마다 김을 내며
돌아가는 작은 압력 밥솥
밥향기 코 끝에 잠길 때마다
가슴 찡해오는 어미 마음

새벽 바람
람부판 앞새 위에 머무는
뜰 앞에 서서
맑은 하늘만 올려다 본다

시를 쓰면서...

두 아이가 장성하여 학업을 위해 저의 부
부 곁을 떠나가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마다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고국에
계신 부모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잠
못이루셨을 수많은 날들,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이, 내 아이
들이 커가면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곤 합
니다.

칙칙대며 압력솥 추 돌아가는 앞에 서서,
밥 냄새 맡으며,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생각
하듯이, 청솔가지 타들어가는 이른새벽 부
엿 아궁이 앞에서 집 떠난 자식 걱정으로 낡
은 앞치마 적시셨을 부모님 마음을, 이제 조
금은 알것만 같습니다.

부모님의 그때 그 나이가 되어서야...



이영숙

- 한국문인협회
- 종로서적 출판 편집부 근무
- 서울 케이블 TV 주최 '엄마와 떠나는 문학여행'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한나프레스 신춘문예 시부문 우수상 당선

온 가족 건강식품 Lidah buaya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을 강타한 건강기능식품의 대표 상품으로 각광을 받던 알로에.. 어느 순간 점점 시들해 지더니 점점 우리의 기억 속으로 잊혀진 듯 하였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 가서 둘러보던 중, 야채코너 한쪽 구석으로 알로에를 잎채로 파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게 알로에 구나 하고 알긴 알지만 감히 사 볼 생각은 안하고 유심히 지켜보거나 살며시 만져보기만 하고 지나칩니다. 몸에 좋긴 좋다는데, 시중에는 각종 알로에를 이용한 화장품, 음료수 등으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로부터 알로에는 식용, 화장품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도 중요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신비의 물질’, ‘하늘의 축복’이라 불리던 인류 최초의 약초라 할 수 있는 알로에.. 그냥 보고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효능을 가진 알로에를 소개할까 합니다.

알로에의 학명은 Aloe입니다. 식물학적 계층을 살펴보

면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의 한 속에 속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알로에는 한약재로 노회(蘆薈) 또는 노회나무라고도 불리며 노회란 Aloe의 “로에”를 한자로 바꾼 이름입니다. 알로에란 말은 원래 아랍어로 『쓰다』, 『빛나는 물질』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알로에를 ‘Lidah buaya’라고 부르며, lidah는 혀, buaya는 악어란 뜻으로 악어의 혀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알로에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프리카 외에 인도, 중남미, 마닐라 제도 등 열대-아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그 분포 지역이 매우 넓으며, 요즘은 온실 재배 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나 러시아와 같은 한대지방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서 인공 재배되고 있습니다. 알로에는 현재 500종이 넘는 종류가 있으며 그 중 가장 흔하고 널리 알려진 종은 알로에 베라(Aloe vera)입니다.

알로에는 진녹색의 겹질로 길쭉한 반원기둥 모양입니다. 잎에는 수분(95%)과 영양을 저장하여 잎이 두툼하며 눌러보면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잎 가장

자리에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가시가 있습니다. 밑 부분은 넓고 위로는 로켓트 모양으로 퍼지며 잎 뒷면은 둥글고 앞면은 약간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알로에를 자르면 투명한 미끈미끈하고 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맛은 독특한 쓴맛이 납니다.

한의학에서 알로에는 노회(蘆薈)라고 하며 노회는 알로에속 식물 Aloe sp.의 진액을 바짝 끓여서 말린 것입니다. 성미는 한 무독(寒 無毒)하고 미는苦하여 쓴맛이 나며 귀경으로는 족궤음간경 수양명대장경(肝 大腸經)에 속합니다. 알로에는 한량한 성질로 인해 사하통변(瀉下通便)시키고 또한 간화(肝火)를 청화(淸火)시키는 효능이 있어 습관성변비와 열결변비를 치료하며, 대변비결로 간경에 실열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어지러움, 두통과 번조이노, 열성경기를 치료합니다. 이 외에도 살충시키는 효능이 있어 기생충으로 인한 복통, 소아의 감적(疳積) 내장이 건강하지 못해 수척해지고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병증을 치료하고, 또한 외용하여 선창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에는 알로인이라는 주성분이 위액분비를 촉진하고 항균작용을 하므로 위와 장의 염증을 소멸시킵니다. 따라서 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장의 활동을 좋게 만들며, 또한 강한 배변촉진 작용을 하여 변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세균과 곰팡이에 대한 살균력이 있고 독소를 중화하는 알로에틴이 들어 있으며, 위 식도 십이지장 궤양, 각종 피부 궤양, 욕창에 효과가 있는 알로에우르신과 항암효과가 있는 알로에미틴이 들어 있습니다. 외용으로도 사용되어 알로에에 함유된 아미노산 및 당단백 등 미끈미끈한 성분이 피부에 활성을 주어 건조된 피부에 수분을 보급하고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알로에에는 다당류, 스테로이드, 사포닌, 항생물질, 상처치유 호르몬, 무기질 유기산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어, 외상이나 화상 등에도 이용하며, 과로로 인한 피로 회복과 과음으로 인한 숙취 해소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로에는 차고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성질이 강해서 장기복용시 복통, 골반내의 충혈, 월경 과다를 유발 할수 있으며, 위산과다자, 몸이 찬 사람, 임산부, 치질 질환 시에는 사용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알로에는 음료수, 쉐러드 드레싱으로 응용하여 먹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알로에 술도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알로에즙을 상처에 발라 흉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의 가려움을 해소하거나, 머리에 마사지해서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한의원에서 일하는 직원 집에도 알로에를 길러 머리에도 바르고 피부에도 바르며 사용한다는 걸 보니 세계 어디에서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알로에는 유행이 지났다고 하지만 유행이 지났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듯 합니다.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알로에는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과 다이어트하는 여성에게 인기만점 건강식품입니다.

풍부한 섬유질로 가득한 알로에의 씹살함을 아침마다 느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학 중심으로 비상 가자마다 대학(UGM)



UGM 한국어과 학생들의 신나는 수업

인도네시아 고도(古都) 족자에 소재한 명문 가자마다대학교(UGM) 인문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어학실에서 한국어 듣기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자료제공: 신성철 / 스피드뉴스 대표, 연합뉴스 통신원>

“ 대학원 과정 개설 예정, 인니 한국학 리드 기대 ”

인도네시아 명문대학교인 가자마다대학교(이하 UGM)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관의 결집된 노력과 지원으로 지난 2003년 3년제 한국어과정(25명/학년)이 개설된 UGM에 2007년에는 4년제 정규과정(40명/학년)의 한국어학과가 설립됐고, 인도네시아인 교수 4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파견된 한국인 강사 4명이 한국어과정과 한국어학과 180여명의 대학생을 지한파로 양성하고 있다.

수라이 한국학과장은 UGM 내의 짧은 역사에 비해 인기도가 급상하고 있는 한국어과에 대한 자랑과 더불어 현재 주춤하고 있는 한류에 관해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전했다.

한편 한국어과 개설 전인 1996년 한-인니 대학간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



가자마다 대학교 한국학센터 전경

가자마다대학교(UGM) 부설 한국학센터의 전경. 최근 도서관, 시청각 교육실, 강의실 등을 갖춘 넓은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 연구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있는 노비 교수는 최근 도서관, 시청각 교육실, 강의실 등을 갖춘 넓은 장소로 이전한 한국학센터를 통해 인니한국학의 중추역할을 해낼 것으로 내다보았다.

UGM은 또한 한국학 연구의 심화를 위해 수년 내에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어서 UGM 내에서 한국어과의 위상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학을 리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과장이 본 ‘한류’

“최근 한류 주춤. 한국 정부차원의 한류 지원 필요 ”

UGM 한국학과 수라이 아궁 누그로호 학과장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 등 문화콘텐츠를 통해 한류가 확산됐으나 현재는 의류와 전자제품, 관광상품 등으로 한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라며 인도네시아 한류의 현 상황에 대한 견해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인도네시아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이 크게 줄었다면서 “다른 나라의 드라마는 무료로 인도네시아 방송국에 제공되지만 한국 드라마는 유료이기 때문에 한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는 수라이 교수는 한류에 힘입어 UGM 내에서 역사 짧은 한국어학과가 영어과와 일본어학과 다음으로 4대 1의 입학경쟁률을 보일 만큼 인기가 좋다고 자랑했다.

대부분의 입학생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한국을 동경하거나 졸업 후 취업이 잘될 것이라는 주변의 권유로 한국어과를 선택한다. 한국어과정 졸업생들은 대부분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취업률을 보임에 따라 한국어학과에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UGM에서 영문과를 졸업한 후 1999년 연세어학당에서 6개월간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의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수라이 교수는 “한국의 발전된 국가시스템과 사회질서가 인상 깊었다”며 “이것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라이 한국어학과장

가자마다대학교(UGM) 인문대학 한국어학과 수라이 아궁 누그로호 학과장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인도네시아에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등 문화 콘텐츠로 한류가 확산됐으나 현재는 의류와 전자제품, 관광상품 등으로 한류가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학 전도사’ 노비 교수

한국학센터의 노비 인드라스투띠 소장은 “한국학센터가 인도네시아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학 전도사’ 노비 교수

“한국의 위기극복 저력 가르칩니다 ”

UGM에 한국어과가 설립되기 훨씬 전인 1996년에 UGM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대학간에 문화, 경제, 정치, 기술 분야 등 교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하는 ‘한국학연구소’가 설립됐다. 사실 UGM은 한국에 관한 관심을 인도네시아 최초로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게 된 효시로 볼 수 있다.

경남대에서 한국현대문학을 공부해 문학박사를 취득한 지한과 인사로, 인도네시아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데 한국학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비 소장은 “한국학센터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한국문화를 심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한국 대학, 한국기업 및 양국 정부와 협



력해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간 협력관계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도서관, 시청각교육실, 강의실 등을 갖춘 넓은 장소로 이전한 한국학 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한국학 연구 중추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학 센터는 한국인들의 위기대처 능력과 현대문화와 조화를 유지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젊은이들의 자세를 인도네시아에 널리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 5월 UGM과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한국학과가 주축이 돼 한국학연구협회를 설립하고 발족기념 세미나 개최를 위해 분주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한국학 센터는 현지 대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 강좌를 열고 2004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열어 한국의 예술, 교육, 관광, IT 등과 한국어과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양국간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랫사람이 청한 악수, 무례? 예의?”

김공섭 교수 “한-印尼 문화 갈등” 소개

지난해 까지 UGM 한국어과 교편을 잡고 있었던 김공섭 교수는 현재 UGM 언어학과 대학원에서 ‘한국인과 자바인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형태 비교’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대학 한국어학과에 객원교수로 부임한 직후 학생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을 보고 ‘건방지네’라고 생각했다가 한국과 달리 자바에서는 아랫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알고 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자신과 주변의 한국인들이 겪는 문화적 갈등을 관한 내용을 논문주제를 잡았다고 소개했다.

“사장을 만났을 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말단 직원과 아버지와 맞담배 피우는 아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서류를 던지며 화를 내는 상사와 검지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지르는 공장장은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인 직원들에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담배에 대해 너무도 관대해 흡연 때 동석한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화가 났을 때조차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는 자바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해야 속이 후련한 한국인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식당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화를 내거나 식사하

UGM 박사과정 중인 김공섭 교수

가자마다대학교 언어학과 대학원에서 ‘한국인과 자바인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형태 비교’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공섭 씨



면서 한국인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전한 김교수는 한국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한국인 상사가 현지직원에게 바닥에 놓인 물건을 발로 차면서 치우지 않았다고 화를 낸 일로 근로자들이 분노해 파업 직전까지 간 일도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왼손이나 발로 가리키는 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왼손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현지인들은 검지로 방향을 가리킬 경우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인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쥐 후 엄지만 펴서 서류를 가리키는 현지인을 보면서 장난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를 졸업한 후 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자바문화의 근본정신을 ‘화합’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자바인들은 어려서부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예절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원활한 의사소통과 갈등의 해결을 원한다면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 형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그 동안 언어교육에서 간과됐던 비언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자국 문화우월주의를 버리고 현지인들과 화합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상호발전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40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제 40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응모 안내

매년 국내외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일문예작품 공모를 실시하여 한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역량을 강화해 나가 있는 민족통일협의회가 해외동포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 40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을 개최합니다.

가. 공모대상 : 국내외 초(4년이상)·중·고·대학생 및 일반국민, 해외동포

나. 공모기간 : 2009.3.25~4.30

다. 입상자 발표 : 2009.6.12(예정)

*자세한 응모방법은 민족통일협의회 홈페이지 www.mintong.or.kr 참조

민족통일협의회



주재국의 출국세와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한 바 있으나 면제 대상 및 절차에 대해 국세청 공고문과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추가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니 국세청 공고문 내용

가. 즉시 면제자

(공항 이민국 출국 심사 전 출국세 사무소에서 확인 절차 이행)

- 1) 21세 미만의 개인
- 2) 12개월 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
- 3) 외교관
- 4) 국제기구 직원
- 5) 12개월 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정부 발행의 거주증을 소지한 인니인 (학생증 포함)
- 6) 정부기관이 인정한 Haji 참가자
- 7) 육로 출국자
- 8) 외국 노동허가증(KTKLN)을 보유한 인니 노동자

- 지방정부 발행의 가족관계 증명서(SKSKP)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009년 1월 16일 이후 NPWP는 출발 3일전 발행된 것이어야 함

다. 출국세 면제를 증명(SKBFLN)하는 서류 제출자

- 1) 인니 대학교에서 발행한 추천서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
- 2) 외국인 중 학술, 문화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 연구자, 선교와 인권 관련 단체 종사자.
- 3) 특별경제지역(바탐, 빈판, 까리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PPH21 및 PPH26 기 납부자
- 4) 사회단체의 비용으로 외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출국하는 장애인 또는 환자와 그 동행 1인
- 5) 인니 정부를 대표하는 예술, 문화, 체육 단체 회원의 출국

나. 납세자번호(NPWP) 소지자

1) 인니인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 NPWP 사본, 여권사본, 보당패스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확인서(가족관계 증명서류에 해당인이 없을 경우)

2) 외국인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 NPWP 사본, 여권사본, 보당패스

- 6) 외국과의 공식 대학생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통해 출국하는 대학생 및 학생
- 7) 노동이주부의 동의서를 지참한 인니인 노동자

3. 상기 SKBFLN 대상자는 장시간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자카르타 세무서로 미리 연락하거나 출발시간 보다 일찍 공항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021-3442442, 021-3504735, 또는 웹사이트: www.pajak.go.id)

4.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021-500-200, 021-525-1234) 및 각급 세무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위 국세청 공고문 중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대사관에서는 동 조항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명해 드립니다.

1. 12개월 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가. 체류기간이 최근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을 경과한 KITAS 보유자일 경우 당연히 출국세 부과 대상이 되며, **EPO(Exit Permit Only, 출국허가)**를 받아 **출국할 경우라도 출국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나. 따라서, 장기체류증(KITAS)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도착비자나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1년 이내 183일 이상을 체류한 경우에도 출국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 사회문화비자로 6개월 체류 후 일시 출국하였다가 곧바로 입국하여 총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 됩니다)

2. 납세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가. 상기 SKSKP는 KITAS 소지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동 SKSKP를 발급 받아 출국세 면제용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 SKSKP 를 발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고 있어, SKSKP 대신 한국 가족관계 서류를 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할 경우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이에 따라 영사과는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내용을 영어로 번역 (대사관 간이양식 비치)하여 영사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사과 추가 안내 사항

1. 공관이 영사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유효기간, 사본제출 가능 여부

영사확인 가족관계 서류의 유효기간이나 사본 제출도 가능 한지 여부는 담당자 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서류는 영사 확인일로부터 1개월간** 그리고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향입니다.

2. 영사 확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 가능여부와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 유효기간 적용 여부

영사확인은 본인 신청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시 본인이 위임장과 촉탁서(공관 비치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서류의 발급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원치이고, 기간 초과 서류는 번역된 서류란에 발급일을 명시하여 처리(다만, 출국세 면제용 이외 공식 서류는 반드시 발급일 3개월 이내여야 함)하고 있습니다.



문명(文明)과 원시(原始)가 공존하는 곳

글 : 김 문 환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으레 록펠러센터를 한번쯤 찾아보게 된다. 이 문화 공간은 1870년 스탠다드 오일사(Standard Oil)를 창설하여 역대 세계 최대 부호의 지위를 누렸으나 리베이트와 뇌물공여의 방법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여 손가락질을 받던 록펠러 1세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그의 아들 록펠러 2세가 록펠러 재단을 통해 건립한 문화복지 시설이다. 록펠러 1세는 석유운송의 동맥인 철도를 장악하고 정유사를 차례로 인수하여 스탠다드 트러스트(Standard Trust)를 설립하며 미국 석유 공급량의 95%까지 장악할 정도로 독과점을 구가하였다. 1900년대 초 당시 록펠러 1세의 총재산은 미국경제의 1.53%에 달해 1998년 빌 게이츠(Bill Gates)의 총재산이 미국경제의 0.56%(900억불)인 점과 비교하면 당시의 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록펠러 2세는 5형제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존 록펠러 3세를 제치고 차남인 넬슨 록펠러(Nelson Rockefeller)는 정치적 야망을 키워

뉴욕 주지사를 연임함과 동시에 제럴드 포드의 뒤를 이어 부통령직까지 올랐으나 대망의 대통령직 도전에는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런데 넬슨은 전처와 후처와의 사이에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후처의 막내아들인 마이클 록펠러(Michael Clark Rockefeller)는 인도네시아와 비극적인 인연을 맺고 있다.

마이클 록펠러는 1960년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 간의 군 복무를 마친 뒤 1961년 하버드대학과 피바디 박물관(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의 공동 탐사팀 일원으로 파푸아(Papua) 섬 중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와메나(Wamena)를 거쳐 발리엠(Baliem)계곡에 도착하여 파푸아 섬의 최대 종족이며 주로 3천 미터의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다니족(Suku Dani)에 대한 연구활동에 착수한다. 음향과 녹음을 담당하던 그는 탐사팀과 함께 일정을 무사히 끝내고 귀국하였으나 얼마 후 네덜란드 출신의 인류학자인 르네 와싱(Rene Wassing)과 재 입국하여 2명의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이번에는 목공예 예술로 유명한 아스맛 종족(Suku Asmat)에 대한 연구와 유물수집을 위해 1961년 11월 11일 파푸아 섬 중서부 플라밍고(Flaminggo)만에 위치한 아가쓰(Agats) 어촌에서 소형 동력 바지선을 타고 아스맛 마을로 들어가는 지름길인 아마남카이(Amanamkai) 해변을 향하고 있었다. 약 3마일 정도 떨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척박한 유배지였던 네덜란드령 파푸아섬 보벤 디굴(Boven Digul)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온 모하맛 핫따(Mohammad Hatta)와 수탄 샤흐리르(Sutan Sjahrir). 1945년 8월 15일 종전이 되어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이들은 각각 초대 부통령, 초대 수상에 취임한다. 사진 좌로부터 수탄 샤흐리르 수상, 수카르노 대통령, 모하맛 핫따 부통령.

어진 해역을 지날 무렵 갑자기 높은 파고를 만나 바지선이 전복되자 현지인 안내자 2명은 곧장 해엄쳐 인근 육지에 도착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르네와 마이클은 전복된 바지선에 매달려 표류하게 된다. 일몰시간이 가까워지자 당황하기 시작한 마이클은 동료인 르네에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I think I can make it...)”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플라스틱 연료통을 부표로 삼아 홀로 육지를 향해 해엄치기 시작했으나 최후의 순간이 되고 말았다. 한편 마이클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전복된 바지선에 매달려 끝까지 표류하던 르네는 다음날 아침 정찰기에 의해 발견되어 직후 달려온 구조선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부친 벨스 록펠러는 네덜란드와 호주 해군의 지원을 받아가며 마이클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하였으나 끝내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익사 또는 상어나 악어의 밥이 되었거나 심지어는 식인종의 제물이 되었을 것이란 추측만 난무한 채 3년이 지난 1964년에 이르러서야 마이클은 법적으로 사망선고 되었다.

마이클이 실종된 지 7년이 지난 1968년 미국 저널리스트인 밀트 맥클린(Milt Machlin)의 뉴욕 사무실에 도

나휴(Donahue)라고 자칭하는 호주인이 찾아왔다. 그는 파푸아 지역을 여행하고 막 돌아온 탐험가라고 소개한 뒤 10주 전쯤 마이클이 실종된 지역에서 수백 키로 떨어진 트로브라이언드(Trobriand) 섬에서 마이클이 살아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호기심에 가득찬 밀트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그날 밤 도나휴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어 있던 록펠러가의 미스터리해 현혹된 밀트는 자비를 들여 마이클의 소재 확인을 위한 탐사에 나선다. 아스맛 지역까지 들어간 밀트는 16마일 영사기로 자신의 탐험과정을 일일이 기록하며 최선을 다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58년 네덜란드인들이 자바 지역에서 추방당해 이곳으로 이주할 당시 마이클의 상륙 추정지점인 오차넵(Otsjanep) 마을의 족장이 네덜란드 경비대에 의해 피살 당하자 그간 백인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던 원주민들이 마침 마이클을 발견하자 그를 보복의 제물로 삼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 정도만 내어 놓았을 뿐이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1979년 막내아들의 실종을 끝내 못 잊어 하던 모친 마가렛타 해피(Margaretta Happy Murphy)는 미화 25십만 불이라는 거액의 자비를 들여가며 개인 탐사팀을 고용하게 되



파푸아섬 아라푸라(Arafura) 해상에서 실종된 막내아들 마이클 록펠러를 구조하기 위해 네덜란드, 호주 해군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진두지휘했던 넬슨 록펠러. 1961년 실종될 당시 마이클은 하버드대학을 우등으로 갓 졸업한 23세의 동안(童顔)이었으며 부친인 넬슨 록펠러는 뉴욕주지사였으나 그 후 미합중국 부통령 직위에까지 올랐다. 사진은 1975년 9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 가족을 환대하는 넬슨 록펠러 부통령 부부. 좌로부터 포드 대통령, 실종된 마이클 록펠러의 생모인 마가렛타 해피(Margaretta Happy), 포드의 딸 수산(Susan), 포드의 부인 베티(Betty) 여사 그리고 넬슨 록펠러 부통령.

었는데 이 조사팀은 현지에서 원주민간의 물물교환으로 유통된 보트엔진과 3개의 백인 유골을 입수하게 된다. 이 중 한 개가 마이클의 것으로 추정되어 마이클의 부모에게 전달되었다.

그린랜드(Greenland)에 이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New Guinea)는 16세기 초 이 지역에 상륙한 포르투갈 항해사 메네테스(De Jorge de Menetes)가 원주민들의 피부색과 머리결을 묘사하여 이 지역을 ‘굽슬머리’라는 뜻을 가진 ‘파푸아(Papua)’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원주민들도 이 명칭을 수용하였다. 1545년에는 스페인 선장 레테스(Inigo Oertis de Retes)가 비악(Biak)과 맘버라모(Mamberamo)강 유역을 탐사하게 되었는데 원주민들의 모습이 아프리카 남쪽 기니 원주민들과 유사하다 하여 스페인어로 ‘Nuava Guinea(New Guinea)’로 불렀고 이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한 네덜란드인들은 1770년부터 그들의 언어인 ‘Nieuw Guinea’로 개칭하였다. 해외 식민지 각축전이 극에 달했던 1895년 5월 16일 제국주의 영국, 네덜란드, 독일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뉴기니 섬 동쪽은 영국, 서쪽은 네덜란드, 그리고 동쪽의 일부와 기타 지역은 독일에 귀속되도록 분할하였다. 섬의 서쪽 부분을 차지하게 된 네덜란드 식민당국은 1926년과 1927년 사이 서부 자바와 서부 수마트라 지역 공산당 봉기 때 체포한 좌익분자와 1930년대에 투옥하기 시작한 민족운동 정치범들을 그들의 식민지

영토 내에서 가장 척박하고 건디기 어려운 몰루카(현재 지명 말루꾸) 제도의 반다 나이라(Banda Naira)섬과 네덜란드령 뉴기니 섬의 내륙 지방인 보벤 디굴(Boven Digul)에 캠프를 설치하여 이들을 수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네덜란드 당국은 총 1,308명의 정치범들을 체포하여 그 중 823명을 보벤 디굴 군, 따나 메라(Tanah Merah) 마을로 유배를 보내 그들 중 상당수가 말라리아로 병사하거나 또는 원주민들에게 희생 당하고 만다. 이 지역은 디굴 강(Sungai Digul) 상류에서 내륙 쪽으로 500킬로나 떨어진 외진 곳이었으며 파푸아 지역 내에서도 말라리아 모기가 가장 창궐하였고 이 지역 원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 집에 걸어두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풍습까지 있었다. 수카르노, 핫파와 함께 지하운동을 전개하던 민족주의 운동가 수판 샤흐리르(Sutan Sjahrir)가 1934년 체포되어 바로 이 지역으로 유배되어 왔으며 3개월 후엔 반식민 저항운동 지도자인 모하맛 핫파(Mohammad Hatta)까지 이곳으로 끌려 오게 된다. 이들은 이곳의 악조건을 이겨내고 오히려 지역 원주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자 말루꾸(Maluku) 군도에 있는 반다 나이라(Banda Naira) 섬 등지로 전전하며 갖은 고초를 겪다가 1942년 3월 일본군이 진주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일본 점령기간 동안 수카르노와 핫파는 일본군정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독립의 길을 모색하였으나 수판 샤흐리르는 지하로 숨어들어 시종일관 일본군에 저항하는 대조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수카르노와 핫타는 각각 초대 정, 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수판 샤흐리르는 11월 초대 수상에 취임한다.

태평양전쟁 당시 호주를 공습하기 위해 이곳에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일본군과 이



인간의 두개골을 주변 가까이 두는 것을 자긍심으로 삼았던 아스맛 종족.

를 저지하려는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정글전에서 전투에 의한 사상자보다 학질과 이질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던 척박한 땅, 최근 일본 종합상사 주재원들이 그곳으로 출장명령이라도 받으면 질겁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후유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비악(Biak)은 항구로서의 입지조건 때문에 전쟁 당시 일본 연합함대와 미 태

평양함대가 해전을 벌여 침몰한 전함의 잔해가 아직까지도 빼어난 남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66년 수카르노 대통령이 실각한 직후 혼인한 메가와띠의 남편이자 공군 파이럿트인 수린드로(Surindro) 중위가 신희의 단꿈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비행훈련 중 비악 상공에서 실종되어 미스터리의 의문부호가 찍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제2차대전 종전 직후 재식민지화의 야욕을 품고 인도네시아 땅을 다시 뺐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4년간 독립전쟁을 치른 인도네시아의 끈질긴 저항과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할 수 없이 인도네시아 본토를 떠난 네덜란드는 1951년 이곳에 총독까지 임명하여 마지막 정착지로 삼고자 하였으나 1956년 수카르노 대통령은 법령 제15호를 공포하여 이 지역을 ‘서부 이리안주(Propinsi Irian Barat; ㉠) ‘Irian’의 뜻은 수카르노 대통령이 반 네덜란드 구호인 ‘Ikut Republik Indonesia, Anti-Netherland’의 두문자를 따 만든 합성어’로 편입시켰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이 지역에 ‘파푸아국(Negara Papua)’을 세울 전초전으로 1961년 의회격인 ‘파푸아 위원회(Komite Nasional Papua)’를 설치하여 80명의 위원을 임명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1961년 12월 19일 ‘트리코라(TRIKORA)’라고 명명한 비상체제를 가동시키며 1962년 1월 9일 이에 대한 무력시위(Mandala)를 수행할 사령관으로 수하르토(Soeharto) 육군 소장을 임명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1962년 6월부터 공수부대와 해군을 선봉으로 내세워 이 지역에 군사작전을 감행하였고 미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였다. 미국의 중재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양국 외무장관은 1962년 8월 15일 뉴욕에서 소위 ‘뉴욕협정(New York Agreement)’에 서명하여 1963년 5월 1일 자로 서부 이리안 지역은 정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로 편입된다. 1973년 수하르토 정부는 이 지역을 ‘이리안 자야(Irian Jaya)’로 개명하였다가 2002년 다시 ‘파푸아(Papua)’주로 바뀌 지금은 파푸아 주(Propinsi Papua)와 서부 파푸아 주(Propinsi Papua Barat)로 분리되어 있다. 이 무렵 특전사(RPKAD) 대대장으로 가장 남단지역이며 행정 중심지인 머라우케(Merauke)에 낙하한 베니(Benny Moerdani) 소령과 북부지역인 소롱(Sorong)에 낙하한 운똥(Untung) 소령은 각각 전쟁영웅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로부터 3년 후 대통령 경호대대장으로 입신한 운똥 중령은 9.30쿠데타의 주모자로 변신하여 혁명군 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베니 중령은 말레이시아 대결정책의 해

결사로서 방콕과 쿠알라룸푸르를 오가며 해외에 체류한 탓에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다.

이와 같이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식인종이 남아있는 지구상의 사각지대에 이곳의 임산자원을 선점하고자 1990년대 초부터 대형 목재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기도 했다. 한국계 목재회사인 K사도 이곳에 미화 1억 불을 투자하여 산림개발과 목재가공 공장을 건설하였으나 2000년도에 이곳의 사업이 좌절되어 그룹사가 회생 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만다. 이때 현지인들의 급료지불



마이클이 실종된 지 7년이 지난 1968년 호주출신의 악명 높은 밀수꾼 도나휴(Donahue)의 허황된 이야기를 듣고도,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이끌려 마이클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아스맛 현장 탐험에 나선 미국 저널리스트 밀트 맥클린(Milt Machlin).

이 밀리게 되자 원주민들은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한국인 직원들을 현지에 장기간 억류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인 직원들이 다 풀려 나온 이후에도 L씨 같은 특이한 사람은 현지에 의도적으로 남아 원주민들과 사업을 계속한다며 벌목행위를 하다가 도벌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옥살이를 하는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TV를 시청하다 보면 가끔 파푸아 지역의 뉴스를 접하게 된다. 주로 종족간의 분쟁 등으로 ‘꼬떼카(Koteka)’만 착용한 전라(全裸)의 원주민들이 창과 활을 들고 타 종족을 공격하거나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을 상대로 활을 쏘아 공격을 당한 진압경찰이 한 손에는 현대 무기를 든 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얼굴에 쏘인 화살을 움켜잡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해학적인 장면을 보노라면 우리가 과연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잠시 착각에 빠질 정도이다. 적도대에 위치하면서 해발 5천 미터에 육박하는 뽀작 자야(Puncak Jaya) 산정엔 만년설이 덮혀 있는가 하면 무풍지대인 여타지역과는 달리 돌풍을 동반한 태풍성 기후가 가끔 문지방을 넘어 오는 곳, 수도 자카르타에서 항공편으로 4~5시간이상이 소요되어 마치 떠나면 타국에 가는 듯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최근 자원개발 붐을 타고 용감한 한국 기업들이 그곳에까지 뛰어들 기세다. 2009년 3월 6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중 양국의 기관과 기업체들은 미화 60억불에 달하는 9건의 의향서(MoU)에 서명하였다. 이 중엔 한국의 S사와 인도네시아 측의 M가 파푸아 주 머라우게 지역에 바이오매스와 발전소 사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에 합작한다는 기사도 눈에 뜨인다. 말이 인도네시아이지 지리적, 풍토적,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어느 모로 보나 이방(異邦)에 온 듯한 생소한 곳에 한국기업들이 진출러시를 이루는 날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곳으로 들어갈 후발 기업이라면 이곳의 이질감과 특수성을 잘 터득하여야 함은 기본이며 성공한 한국계 K기업과 실패한 또 하나의 K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도 해봄직하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극소화한다면 이는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요, 국가경제력의 누수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돌림병 기념하는 리엵바다 제(祭)

글/사진 김성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사는 한국 분이 내가 사는 휴양지며 교육도시인 말랑이나 근교지역을 ‘오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오지든 두메산골이든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와 보지 않은 분들은 인도네시아 전체가 오지의 나라인 줄로 알고 있는데.

오지에 가면 도시에서 할 수 없는 현장 체험거리가 많기 때문이지요. 유년시절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 댁에 가서 채집해 놓은 추억의 전리품을 열어 보고 그때 그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흙으로 된 논둑이 콘크리트로 변하지 않는 이상 시골사람들의 인심은 그래도 명절 날 인심처럼 늘 풍성 할 겁니다.

인도네시아 모든 것의 온상지 자바 섬, 동부 꼬트머리에 가면 말랑이 있습니다. 말랑 시내서 차타고 3시간 갑니다. 꼬부랑 할머니도 피해 갈 꼬불꼬불한 길 따라 울창한 자떠나무 숲도 지납니다. 절벽 모퉁이를 끼고 돌면 사탕수수 밭이 나오고 계속가면 가면 리엵(Ngliyep)마을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그곳 사람들의 특유한 전통문화 바다 제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치 좋은 리엵입니다.



절벽에서 스사지를 바다로 보내는 장면



와양꼴 하고 있는 빼달랑
(중간에 사람)

리엽 사람들은 자와 달력으로 마울룬(2월)에 동물들의 머리를 스사지(Sesaji/제물)라 하여 바다에 빠뜨립니다. 이런 전통은 1913년경 솔로 지역의 마타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마을에는 심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침나절에 돌림병에 걸리면 저녁녘에 죽어 나가자 리엽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장로 한 사람이 신께 간절히 기도하여 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대로 마을 앞바다에 동물(염소, 닭, 곡식)들의 머리를 스사지로 바치자 마을 사람들의 병이 더 이상 걸리지도 않고 걸린 사람 또한 나았다고 했습니다. 돌림병이 나았다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를 올리는 것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마울룬 의식 전날은 밤새도록 ‘와양꼴릿/Wayang Kulit’을 공연이 있습니다. 이 와양꼴릿(그림자 인형극)은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약 200여 가지나 되고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인형극은 빼달랑/pedalang이라는 사람이 혼자 밤새도록 하며 자와 말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옛날 영웅들의 이야기나 시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람들의 관심거리를 주

제로 합니다. 빼달랑 입담에 따라 사람들은 울기도, 웃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장로(長老) 집에 모여 아침부터 소, 염소와 닭 등을 잡아 남자들만 요리를 합니다. 이날 남자들은 아침부터 요리를 다 만들 때까지 금식하고 여자들의 부엌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음식을 요리하는데 한 여자가 와서 거든다고 하였는데 그날 오후까지도 음식들이 익지가 않았다고 또 종일 비가 오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형편 되는대로 닭이든 쌀이든 성의껏 가져왔습니다.

하오의 햇살을 머리에 와 있을 때 스사지를 가지고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 앞에서 간단한 의식을 하고 여인들이 여물통에 절구 찢은 소리를 들으며 준비된 스사지를 가지고 구농꿈방(Gunung Kumbang)이라는 높은 곳을



와양꼴릿 뒤에서 본 인형의 그림자



건두리. 집으로 가져가는 음식

로 올라갑니다. 그곳 절벽에서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스사지를 바다로 빠뜨렸습니다. 이때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동물들의 머리와 가죽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 있는 것은 바다로 내버려진 스사지가 파도로 밀려 해변으로 나오면 그것을 건지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끝나면 마을로 돌아와 아침에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자떠나무 이파리에 포장된 밥과 고기는 마을의 대표 한 사람이 장부를 들고 이름을 불러 체크한 후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내가 본 그런 장면들

은 아주 예전에 우리 마을 사람들도 잔칫날 이렇게 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의식을 자바어로 ‘건두레안(Gendurean: 안녕을 기원)이라 하고, 그 음식을 건두리(Genduri)라 하는데 그곳에서는 그저 맛만 보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에서 한 끼만에 다 먹지 않고 두고두고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밥이 아니라 약으로 생각한다고 촌장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밥이 보약’이란 말을 그들에게 역지로나도 갖다 붙이면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리엽바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만들어 진 물 부스리기들은 하얀 세제보다 더 희고 거품도 많습니다. 취재하러 전국 여러 곳곳을 다녀보았지만 리엽 촌장의 친절이 유난히 고마웠습니다. 첫날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밤 12시였고 너무 피곤해서 다음 날 늦잠 자며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온다던 사람이 연락이 없자 염려가 되었던지 언제 오느냐고 전화까지 해 주신 촌장님과 나와 함께 사진 찍고 사진 보내달라던 팔순노인 리엽 장로도 쉽게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끝난 스사지가 파도에 밀려오면 건지려는 사람들의 모습



드라이빙 미스터 하리스

유춘강
소설가, 카피라이터



한국에선 비싼 임금 때문에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워낙 교통이 험난한 곳이라서 본인이 차를 밀고 다니지 않을 바엔 무조건 외국인운전기사를 쓴다고 해서 남편이 드디어 기사를 채용했다. 게다가 임금도 저렴하다고 하니 팔자에도 없었던 기사를 두고 부담 없이 드라이빙을 즐기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다 말하길, 여기서는 운전사와 가사도우미는 기본이라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본국으로 돌아 가면 모두 다 몇 평 안 되는 아파트로 들어갈 것이고, 한국에서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를 부린다는 건 주거여건으로 보나 금전적으로보다 불가능한 일이라 가사도우미 고용은 생략하기로 했다. 누구나 배운다는 골프도 마찬가지였다. 운동이라곤 원고를 쓰느라 좌판을 두들기는 것이 전부일 만큼 운동을 즐겨 하지 않으니 골프는 배울 생각도 없다. 유모 역시 마찬가지다. 골프를 배울 생각도 없으니, 애들 챙길 유모도 필요 없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내가 내린 결론이다. 한국에서 직장 다니며, 아침이면 애들 맡기고 동동거리다 학교 행사라도 있으면 눈치 보며 학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에 비하면 이곳에서의 하루가 너무나 조용하고 무료하니 정신건강상 적당한 육신의 움직임도 필요할 듯 하다. 더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사춘기 딸과 치르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있는 탓에 아직은 제삼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내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데 있다. 바로 가사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는 내 어머니 때문이다. 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광고회사를 다닐 때였다. 그때가 아마 친정이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마치 폭풍 속을 온 가족이 함께 통과하는 듯한 일상이 끝 없이 지속될 것 같은 나날이었다.

친정 엄마는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과 여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대한민국 아줌마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다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 모두들 말렸지만, 엄마는 자존심을 죽인 후 바카스한 병으로 삶의 피로감을 잊으며 그 일을 하셨다. 하루에 열 시간을. 어느 날 갑자기 고용주에서 고용인으로 바뀐 셈이었다. 지금은 다 자리 잡고 웃으면서 그때를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절에 나는 엄마에게 절대 가사도우미는 쓰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다. 직장을 다니고 아이가 셋이 났을 때도 나는 한번도 가사도우미를 쓴 적이 없다. 그건 내가 엄마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달랐다. 운전기사가 없는 며칠 한 달간의 생활은 그야말로 손발이 다 묶인 느낌이었다. 운전기사의 등장은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아 역시 사람은 문명에 한번 길들여지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했다. 그러니 남편이 면접을 보고 채용한 운전기사 하리

스가 어찌 반갑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다. 오죽 급했으면 그가 오던 날 말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시내에서 만나기로 하고 출발 했을까. 그것도 아이 셋을 다 데리고 말이다.

믿는 거라곤 몇 주간 독학으로 배운 인도네시아어와 나의 한없이 짧은 영어였다. 다행히 그는 영어는 까막눈이라 내가 영어를 잘하는 지 못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앞에서 당연히 느꼈던 영어울렁증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외국인 앞에서 생각나지도 않던 단어들이 플래시카드처럼 잘도 떠올랐다. 그러나 떠오르면 뭘 하나. 그가 못 알아 듣는 걸. 결국 나는 늘 들고 다니는 인니어 사전으로 퍼 들고 그와 소통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건 아이들의 학교가 정해진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의 영어는 도무지 나아질 줄 모르고, 조상 중에 까마귀고기를 잡순 분이 계신지 알려준 단어는 죄다 까먹어서 도루묵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또 다시 인니어 사전을 들고 소통을 해야 한다. 운전기사 하리스 씨는 배짱도 두둑하시다.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고칠 생각도 안 하신다. 그래도 요령은 있어서 가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기다리고 있으면 10분 안에 용케도 어디선가 슬쩍 나타난다. 혹시 이 사람이 내 뒤를 밟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다. 나 역시 이제 핸드폰을 고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나에게도 배짱이 생긴 것이다. 해도 소용도 없고. 만날 고친다고는 하지만 그가 정말 고치러 갔었는지도 의문이다.

오래 전에 본 영화 <드라이빙 미스데이지>가 생각난다. 그 영화의 흑인 운전기사과 노부인처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종종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은 그와의 일상이 어쩐지 장담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가 생각해 내는 것이 뻔한지라 그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는 볼 생각이다. 뻔짝에 두고 왔다는 아내와 그의 아들, 아리를 생각해서라도 말이다.

유도유노 대통령의 광 팬이신 하리스 씨는 눈을 반짝이며 언제나 정치 이야기를 한다. 짧은 영어와 인도네시아말로. 그러면 나는 절반도 못 알아 들으면서 유도유노 대통령의 예찬론을 들어 준다. 오늘도 하리스 씨는 자신의 지지하는 정당의 깃발을 거리에서 발견하곤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며 <유도유노 굿> 이란다. 아마도 그에게 유도유노 대통령이 희망인가보다. 그러면서도 감기 들었다고 땀 흘리는 시늉을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그를 보면 오늘도 ‘하리스는 정말 못 말려’ 라는 소리가 입에서 떠나질 않는 하루다.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MuSeum Tour

지난 2월 28일 사공경님의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에서 못다한 이야기' 공개 강의를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3월 28일에 개최된 '사진과 컴퓨터'는 강사 김경희님의 자세한 설명과 많은 분들의 참여로 크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주신 김경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4월 25일(토) 10시에는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서예가 손인식님께서 "서예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서예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주부 서예반을 몇 년째 이끌어 오고 계시는 손인식님의 이번 강의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School Program

JIKS에서 4월 8일과 13일 족자와 발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학년과 9학년이 4월 중순에 수학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실시된 것입니다. 족자와 발리 발표의 컴퓨터 작업 및 파워포인트를 위해 임희옥씨와 김영덕씨 등 모두들 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발리의 개요 부분은 김종심씨가 맡아서 준비를 했고, 사원 및 축제는 이정희씨가, 문화 예술 분야는 김영덕씨가, 관광 명소에 대한 소개는 임희옥씨가 담당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Photo Club

사진반은 3월 7일 오전 10시에 잘란 수라바야로 출사를 갔습니다. 이 모임에는 8명이 참석하여서 대략 2시간 정도 정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안연숙님께서 정물 사진 찍는 법에 대해 자료조사를 해와서 짧은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4월 4일에는 꽃 사진을 찍으러 빠꾸부워노 아파트에 갈 예정이며 4월 29일에는 뽕작 차밭의 풍경 사진을 찍으러 출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의 정기적인 국립 박물관 한국어 안내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9시 30분에 국립박물관 현관 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4월부터는 그 일정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 투어에 참여를 원하시는 교민들께선 참고 바랍니다.

● 국립 박물관 한국어 투어 변경안내

기존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9시 30분

변경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9시 30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9시 30분

공동 회장 : 이수진 0816-1300-210

이종숙 0812-838-1294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짱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11



김남규 편집위원
(코린도 그룹 이사)

김연아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

지난 3월호에는 김연아 선수의 영어이름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99년 세계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의 우승 소식과 함께 AP통신이 전 세계에 타전한 기사를 이번 4월호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여왕의 별명에 어울리는 우승을 차지하였다

Kim Yu-na has a world title to go with her royal nickname

(주) go with 와 잘 어울리다 Your dress goes well with you 옷이 너랑 참 잘 어울려. Kim Yu-na, Kim Yuna 둘 다 많이 쓰임

숭배하는 팬들에 의해 여왕으로 불리는 김연아 선수는 토요일 밤(2009년 3월 28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Kim, called "Queen Yu-na" by her adoring fans, gave South Korea its first title at the World Figure Skating Championships on Saturday night

(주) adoring 숭배하는, 흠모하는



규정 종목인 쇼트 프로그램에서 큰 차이로 선두를 차지한 후에, 자유종목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여왕의 즉위식 같았다. 그녀는 예전 세계기록을 8점이나 갱신하는 207.71점의 세계기록으로 우승하였다

After her big lead in the short program, this was more coronation than competition. She finished with a record 207.71 points, shattering the old mark by eight

(주) coronation 즉위식, shatter 산산이 부수다, 박살 내다(=break), break the record 기록을 갱신하다, 예전 세계기록은 2006년에 Mao Asada 가 세운 199.52 이었음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내겐 꿈이었어요. 난 이곳(LA)에서 해냈고 나도 놀랄 정도예요

"Being the world champion was my dream and I did it here," Kim said. "So it's just amazing."

(주) My dream came true 꿈이 이루어졌어. It is hard to describe it=It's beyond my description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야. 김연아 선수의 영어 인터뷰. 영어도 수준급 ^&^

김 선수는 2위인 캐나다 선수에게 16점 이상 앞섰고, 라이벌인 일본 선수 아사다 선수에겐 거의 20점을 앞섰다. 어떻게 그런 큰 점수차로 참패가 있을 수 있나?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의 유명 선수들의 경기를 생각해 보라 그럼 그 이유를 알 것이다

Kim was more than 16 points ahead of Joannie Rochette, and beat main rival Mao Asada by almost 20. How big a rout is that? Think one of those non-conference football games the big names play, and you get the idea

(주) main rival=archrival 최대의 라이벌, rout 참패, conference 경기 연맹(미국), 이번에 Asada 선수는 4위

김 선수는 쉽게 민첩하게, 마치 얼음 위를 나는 것처럼, 그러나 믿기지 않을 정도의 힘과 강렬함을 가지고 연기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이 착지 할 때 안정을 찾기 위해 점프를 할 때 속도를 늦춘 반면, 김연아 선수는 전속력으로 치고 달렸다 그러면서도 마치 잠잘 때 쓰는 베개 에 착지하듯 부드럽게 착지했다

Kim skates with ease and lightness, seeming almost to fly across the ice, but has incredible power and strength. While other skaters slow down as they approach their jumps, trying to steady themselves, she goes full speed ahead. Yet she lands as if she's touching down on a pillow

그 뿐 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우세한 재능은 무용의 안무 가치처럼 뛰어나게 얼음판을 누볐다 그녀의 모든 점프는 음악에서 음이 점점 세어지는 크레센도가 되어 다른 기술요소와 함께 자유 종목에서 음악을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하였다. 그녀의 발놀림은 절묘하여 안무 음악 내내 여왕의 우아함을 갖고 연기를 하였다

There is so much more to her, though. Her edge quality is so high she carves the ice like a calligrapher. All of her jumps were landed to crescendos in the music, making the music as much a part of her program as any other element. Her footwork was exquisite, and she skated with the elegance of a queen throughout her "Sheherazade" program

(주) There is more than meets the eye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 There is much more to her you could imagine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그녀는 갖고 있어 There is much more to her than you heard 네가 들은 것 이상의 것을 그녀는 갖고 있어, edge 우세, 강점, 칼의 날, crescendo 크레센도; 음이 점점 세짐, (비유) (클라이맥스로의) 진전; 클라이맥스. exquisite 절묘한, 절미한(조망, 아름다움 등); 썩 훌륭함(솜씨, 연주가)

관중들은 이틀 연속으로 진정 특별한 것을 관람 할 줄 미리 알고 마지막 15초는 서 있었다

The audience was on its feet for the last 15 seconds of her program, knowing it had seen something truly special for a second straight night.

(주) on one's feet 일어서서

위에 인용된 기사들은 미국 AP(Associated Press)이며, 3월 30일자 Jakarta Post 영자신문에 보면 AFP(Agence France-Presse)의 다른 영문 기사를 보실 수 있고, 주요 언론사 기사도 검색 기능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WBC 한국 준우승

또한 지난 3월, 20여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과 흥분을 안겨주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야구! 2009 WBC(World Baseball Classic) 에서 준우승을 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번 호에는 야구 영어도 특집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왜 Classic 인가? 원래 classic 은 명작, 걸작, 전통적 시합, 경기의 뜻도 있지만 야구에서는 World Series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투수 와 포수:

pitcher and catcher=battery(발음: 배더리)

(주) 밋테리, 빠떼리, 배터리는 틀린 발음

단타: single

(주) double: 2루타, triple: 3루타

중단경기, 콜드게임: a called game

(주) call; (경기의) 중지를 명하다;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주2) call it a day (오늘은) 이만해 두다

밀어내기 볼 넷: bases-loaded walk

(주) Walk off: 사사구로 걸어 나가는 것, 도루 Stolen base

선발투수: Starter

(주) starter 는 식사 의 제1코스 뜻도 있음, ace 주전투수, left-handed pitcher(=LHP) 좌완 투수, Right-Handed Pitcher(=RHP) 우완투수, 구원 투수가 위밍업 하는 장소 Bullpen

희생 번트: Sacrifice bunt

희생 플라이: Sacrifice fly

만루 홈런: Grand slam home run=Grand slam

(주) Grand slam 은 골프, 테니스 등에서 주요 대회 모두 제패 하는 뜻도 있음

선두주자: First-runner, 원봉: Shutout

지명타자: Designated hitter

(주) Pinch hitter: 기회, 위기에 기용하는 대타

9회 초: Top of the ninth inning

(주) Bottom of the ninth: 9회 말

대략, 어림잡아, 눈대중으로: ball park figure

(주) 여기서 ball park는 큰 야구경기장이 아닌 동네에서 야구를 할만한 작은 경기장을 의미합니다. 아나운서가 관중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눈대중으로 수를 세죠? 바로 이런 뜻에서 유래된 이 표현은 '대략, 대충'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타점: RBI=run(s) batted in

케네디 스코어: Kennedy score

(주) 야구 경기에서 8:7로 승부가 나는 것. 1960년 케네디 미국 상원이 기자가 야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수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투수전도 아니고, 타격전으로 1점 차이로 승부가 가장 재미있다고 답변한대서 유래. 2008년 북경 올림픽 대회 야구 1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9회 말 6:7로 뒤진 상황에서 8:7로 대한민국 대표 팀이 승리한 바 있음

득점 기회를 잘 이용한 반면, B 팀은 위기에서 불굴의 우완 투수의 영향을 받아 공략하는데 실패했다

Team A cashed in on their scoring positions while team B failed to hit in the clutch against gritty right-hander

(주) cash in on (회화체) 에서 이익을 얻다, 을 이용하다, clutch: 위기, 위급 (예) When it comes to the

clutch=When it come to the pinch 위급한 상황이 오면 gritty 굳센, 불굴의(미국 영어)

선수들이 열심히 했고 결과는 만족스럽다

They played hard, and the results were satisfactory

이번 경기는 필사의 게임이 될 것이다

It's going to be do-or-die game

(주) all-or-nothing 도 아니면 모, sink-or-swim 흥하든 망하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선심에게 소리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는 스포츠 선수 답지 않은 행동을 저질러 강령을 위반 하였다

He was given a code violation for unsportsmanlike conduct for screaming and pointing at the line judge

무명에서 영웅으로: from zero to hero

(주) 영웅에서 별 볼일 없는 인간으로 from hero to zero

승산/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the odds?

(주) 확률=odds=probability

(주2) odds and ends: 잡동사니, odd number: 홀 수, even number: 짝수

내일 경기는 반반의 가능성이라고 본다

I think tomorrow will be toss-up(=50/50 chance=even chance)

(주) tossup: 동전 던지기, head: 동전 앞면, tail: 동전 뒷면

첫 경기에서 이긴 후 한국 팀은 승승장구 했다

After winning the opening match, the Korean team never looked back

(주) 원래 look back 은 뒤돌아 보다 이며 경기에서 never look back 은 줄곧 선두를 유지하다, 승리하다

그 승리로 인하여 한국팀은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

The win removed a monkey from Korea's back

(주) a monkey on someone's back: 심각한 골치거리. 마음의 부담(미국영어)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 많은 확신을 난 갖고 있다

I've got a lot of confidence when I am in the field and when I am at the plate

(주) 야구 경기에서 쓰는 filed 는 수비를 하고 plate 는 공격할 때를 말함,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인들은 의기양양했고 일본인들은 성이 났다

Japanese were irate and Koreans were elated at WBC

(주) 영자신문에 나온 기사로서 발음이 비슷한 irate(성난, 노한) 와 elate(의기양양하다) 란 단어를 쓴 것이 재미있음



4. 골프영어

11) 멋진 샷이야

Great shot! = Fantastic shot! = Superb shot! = Marvelous Shot! = Beautiful shot!= Magnificent Shot!= That's the beauty! (Player가 아주 멋진 shot을 구사했을 때 하는 칭찬의 표현)

(주) Nice Shot! ; 어떤 책에서는 잘못된 표현 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ESPN, Star Sports Golf 중계에서 쓰이고 있음 단 아주 멋진 shot은 아니지만 팬층은 shot이란 뜻임 (ex) Nice shot from that distance! (그 거리에선 팬층은 shot이다: 2000년 7월 22일, 129회 The British Open 에서 해설자가 썼던 표현임)

(주2) That's nice to have it, but not necessary(or mandatory): 갖고 있으면야 좋지만 꼭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즉 누가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정중하게 거절 할 때 쓰는 표현임

12) 골프를 치실 때는 땅 위의 나무와 하늘의 새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골프의 묘미죠”

“When you play golf game, you should be able to look at the trees on the ground and birds in the sky. That is the beauty of the golf game”

13) 좋은 소식은 내 볼이 그린에 올라 간 것이고, 나쁜 소식은 엄청 긴 퍼팅이야

The good news is my ball is on the green, but the

bad news is it's going to be huge putting: 좋은 소식은 내 볼이 그린에 올라 간 것이고, 나쁜 소식은 엄청 긴 퍼팅이야

(주) The good news is... but the bad news 는 아주 자주 쓰이는 유용한 표현이므로 필히 암기 바람 (예) The good news is I've got a couple of free movie ticket, but the bad news is my girl friend is now in New York: 좋은 소식은 공짜 영화 표가 2장 생겼고, 나쁜 소식은 같이 보러 갈 애인이 지금 뉴욕에 있다는 거야.

14) 그린이 엄청 빨라

The green is unbelievably fast

(주) unbelievably=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15) 컵 속에 좀 들어가라. 들어가!

Come on in! =Get in there! = Go in!

컵 속에 좀 들어가라. 들어가! (예)” Unfortunately, putts that I hit good did not go in.” (재수없게도, 잘 친 퍼팅도 안 들어갔어): Jakarta Post신문 2002년 1월 11일자 기사 중 “New Zealand Open Championship” 1st Round후 Tiger Woods가 한 얘기를 인용하였음



5. 음식/접대 영어

11) 오늘 저녁은 뭐야? /배고파 죽겠어/먹는 것 만 생각하니 넌?

What's for dinner? I am famished/ Is eating all you ever think about?

(주) famished 굶주린, 배고픈=hungry, 나 배고파 I am hungry=I am famished=I am starving, 굶어 죽다 be famished to death=be starved to death

12) 한턱 쏘느냐 아니면 각자 나누어서 내느냐 그것이 문제야

To treat or to split, that is the question

(주) treat 음식을 대접하다, ~에게 한턱 내다 I will treat you all. 모두에게 한턱 쏌게 내가, This is my treat 이걸 내가 내는 거야 This bill is on me 지불할게 내가(내가 쏌지)

(주) This drink is on me 이 술은 내가 사지. 2nd

Round's bill is on me 이차는 내가 사지

13) 달걀을 한 쪽만 프라이한 것

Sunny-side up

(주) 삶은 달걀 boiled egg, 프라이한 달걀 fried egg, 우유나 버터를 넣고 휘저어 익힌 달걀 scrambled egg

(주2) eggs over easy 곁을 완전히 익히고 난 후 접시에 담아 나오기 전에 빨리 뒤집어서 요리된 달걀(미국 영어이며, 그런 달걀을 원할 경우, Over easy, please 라고 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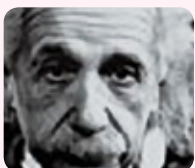
14)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을 거야

We are going to dig into the foods

(주) dig into 게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다, 철저히 조사하다

15) 과식하지 마

Don't take too much=Don't eat too much



6. 속담/격언/명언

11) 지나 간 것은 지나 간 거야(지난 일은 잊어버려)

What's over is over

12) 새 발의 피야/조족지혈이야(직역: 바다에 떨어지는 빗물이야)

It's just a raindrop in the sea

(주) It's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이야, iceberg 빙산, tip 첨단, 끝

13)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아이디어, 선수, 카드 등)은 항상 남겨둬라

Always save the best till last

(주) save one's face 체면을 유지하다

14)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직역: 한 사람 보다는 둘이 더 나아)

Two is better than one

15)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더 먹는다(부지런해야 수가 난다)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7. 직장/발표/회의 관련 영어

11) 간소화된 공정, 더 넓은 구역과 제 때의 공급을 통하여 우리는 서비스 차별화를 이루어 냈다

We achieved service differentiation through streamlined processing, wider reach and just-in-time delivery

(주) differentiation 차별화, in time 때를 맞춰, streamline 간소화하다, simplify 단순화하다

12) 수요 원동력은 경제 성장, 인구 증가, 높아지고 있는 생활수준들이다

Demand drivers are economic growth, population growth, increasing living standard

(주) driver 원동력, growth driver 성장 원동력 a hit-and-run driver 사람을 친 뺑소니 운전자

13) 빠르게 전개되는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는 올바른 동반자를 우리는 원한다

We need the right partner to keep up with the fast evolving market

(주) keep up with 뒤쳐지지 않다, evolve 발전시키다; 전개하다

14) 양자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늘과 땅 차이다

There is no comparison between the two

15) 비교표를 보면 비슷한 것들과 다른 것들이 있다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If you look at the comparison table, you will find there are similarities and there are differences

다음 호에는 8. 출장/여행 영어, 9. 무역/경제/재정/금융 영어, 10 정치/사회 영어, 11 패션/쇼핑 영어가 계속해서 게재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짱” 니콜라스 올림



중재 (분쟁해결 제도)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1. 분쟁 해결 방법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 시 인도네시아 제도상으로 허용이 되는 분쟁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 협상하여 직접 해결하는 방법, 관할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해결하는 민사 소송, 파산선고 소송 및 형사 고소와 Arbitrase(Arbitration) 및 Mediasi(Mediation)가 있다. 민사 소송은 분쟁 해결의 제도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방법이다. 형사 고소는 법리상으로는 분쟁 해결 방법이 아니나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인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분쟁 해결 방법으로 왕왕 쓰여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 해결의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 파산선고 소송은 기업 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 채무 존재를 법리상으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채무자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Arbitrase와 Mediasi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이나 한국말로 번역하면 둘 다 “중재”라는 단어 이외에 적절한 다른 단어가 없어서 그냥 원어대로 Arbitrase와 Mediasi라고 호칭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다. Arbitrase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거나 Mediasi는 소송을 청구한 다음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법원과 상관없이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Mediasi가 있다. Arbitrase를 행하는 사람 혹은 집단은 Arbiter라고 부르고 Mediasi를 행하는 사람은 Mediator라고 부른다.

2. 분쟁의 원인

국내 혹은 국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분쟁이 발생 시에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어떻게 해결한다고 계약서에 미리 약정해두면 분쟁 해결이 비교적 용이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쟁 해결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약정하거나 아예 언급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 분쟁의 원인은 계약위반, 불법행위 및 부당 이익 등

이며 모든 민사 소송의 사유는 계약 위반, 불법행위 혹은 계약위반+ 불법행위이다.

3. Arbitrase

Arbitrase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법원에 의뢰하지 않고, 제삼자인 Arbiter(중재인 혹은 중재인)를 선행하여 Arbiter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1999년 법률 제30호 중재에 관한 법은, Arbiter의 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보호하고 있다. Arbiter는 공인 중재원으로 되어 있는 Arbiter와 분쟁 당사자의 지명으로 해당 분쟁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로 구성되는 Arbiter Ad Hoc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Arbiter는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인도네시아 중재원)으로 BANI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상사 중재원의 판결문도 뉴욕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Arbitrase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하면 BANI에 의뢰하여 해결한다는 Arbitrase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Arbitrase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BANI에 분쟁 해결 의뢰가 불가능하다.

4. 소송과 Arbitrase의 차이

4.1. 관할권의 차이

소송은 관할권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있으며 재심청구까지 가능하나 Arbitrase는 단심으로 되어 있다. Arbiter의 판결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final and binding).

4.2. 소요 시간의 차이

민사 소송은 지방법원 약 6개월, 고등법원 약 6개월, 대법원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파산선고 소송은 상업법원 최장 60일, 대법원 최장 60일 소요되며 Arbitrase는 BANI는 180일, Arbiter Ad Hoc은 소요되는 기간을 당사자와 Arbiter 간에 협의하여 약정한다.

4.3. 부담 경비의 차이

소송은 변호사비와 다른 경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Arbitrase는 변호사비와 공식 Arbiter를 부담해야 한다.

4.4. 재판부 구성의 차이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래나 합작투자에 전문 지식이 없는 판사가 맡게 될 수도 있으나 Arbitrase는 당사자가 해당 분야에 전문가인 Arbiter를 지명할 수 있다. BANI의 경우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학식, 경험, 경륜이 있는 법조인, 학자, 기업인, 기술인, 국제무역 전문가, 합작투자 전문가와 외국인 중재위원 중에서 청구자가 한 사람을 지명하고 피청구자가 다른 한 사람을 지명하며 BANI에서 Board of Arbitration(“BOA”) 의장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이 BOA를 구성하여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법원의 판결보다는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4.5. 재판 과정 공개 여부 차이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Arbitrase는 공개 재판을 금한다. 비공개 재판으로 당사자의 비밀 및 Reputation를 보호한다.



4.6. 분쟁 해결 목적물의 차이

소송의 목적물은 거의 제한이 없이 광범위하며 Arbitrase의 목적물은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 혹은 국제 상거래, 계약, 합작투자,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금전대여, 임대차, 제조, 가공, 수선, 공급, 도급, 광고, 보증, 상행위, 대리, 중계, 위탁매매, 운송, 신탁, 보험, 무역, 기술제휴, 건설, 건축, 해운, 특허, 대리점, 수출입 알선, 상품판매, 도매, 소매 등 경제 분야이다.

4.7. 판결문 강제집행지의 차이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Arbiter의 판결문은 뉴욕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5. Arbitrase 조항

5.1. Arbitrase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계약서에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을 Arbiter에게 의뢰하여 해결한다는 Arbiter 조항을 사전에 넣어 놓아야 한다. 계약 당사자 체결한 계약서에 Arbitrase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Arbitrase가 불가능하다.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으나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Arbitrase 조항을 넣어 분쟁이 발생 시에는 Arbitrase로 해결하는 것이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 거래에서도,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Arbitrase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5.2. 한글 Arbitrase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지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BANI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5.3. 영문 Arbitrase 조항 “예”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Indonesia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BANI. The award rendered by BANI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5.4. 인도네시아어 Arbitrase 조항 “예”

“Semua perelisihan atau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menurutperaturanadministrasi dan peraturan-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yang keputusannya mengik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6. 일반법원의 소송 각하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하여 Arbitrase 조항을 넣은 경우에 한 당사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Arbitrase 조항을 들어 재판을 각하한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



하여 민사소송물 제기한 경우에 계약서나 약정서에 Arbitrase 조항이 없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Arbitrase 조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각하해야한다. 민법상의 계약 자유원칙에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를 구속하는 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일지라도 계약 내용이 실정법이나 사회 미풍 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모든 계약은 실정법과 사회 미풍 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7. 준거법

계약서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약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현지 법인 인도네시아 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8. Arbiter 비

8.1.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공식 Arbiter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액(Rupiah)	Arbiter비(%)	청구액(Rupiah)	Arbiter비(%)
5억 미만	10	250억 미만	2.4
5억	9	275억 미만	2.2
10억 미만	8	300억 미만	2.0
25억 미만	7	500억 미만	1.6
50억 미만	6	600억 미만	1.5
75억 미만	5	700억 미만	1.4
100억 미만	4	800억 미만	1.3
125억 미만	3.5	900억 미만	1.2
150억 미만	3.2	1,000억 미만	1.1
1750억 미만	3.0	2,000억 미만	1.0
200억 미만	2.8	3,000억 미만	0.9
225억 미만	2.6	4,000억 미만	0.8
250억 미만	2.4	5,000억 미만	0.6
275억 미만	2.2	5,000억 이상	0.5
300억 미만	2.0		

8.2. BOA Ad Hoc의 Arbiter비

통상 BANI의 Arbiter비에 준한다.

9. Arbiter비 선납원칙

Arbiter비를 완납한 후에 Arbitrase가 시작된다. Arbitrase 시작 전에 청구자와 피청구자에게 각각 Arbiter비의 50%씩을 납부하도록 통보가 간다. 피청구자가 Arbiter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우선 전액 지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청구자가 Arbiter비 50%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Arbiter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 호에 계속)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글 : 허영순 작가 (Oktn : KBS WORLD INDONESIA)
자료 제공 : OKTN (KORINDO)

사람이나 사물은 모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식물을 뜯는 어떠한 것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 부르곤 합니다.

주일 오후, 인도네시아 최대 서점인 GraMedia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서적 코너에 문구 코너 (Peralatan tulis)가 생겼습니다.

색연필, 크레파스 그리고 노트들 한국 제품들이 진열돼 있어 저도 모르게 신이 났습니다.

12가지 색 색연필과 크레파스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살색...

살색이라... 한국 사람에게는 살색이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살색이라고 하면 어떤 색을 줄까?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 민족국가인 인도네시아, 한국도 예전엔 한민족이었지만 국제 결혼이 많아지면서 다민족 국가로 전환되는 변환기라 던데, 현지 친구에게 물어보니 인도네시아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크림색을 살색 (Warna Kulit)이라 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 궁금 했는데 Warna(색) Kulit (피부, 살) 처럼 치완적인 표현이 일치 될 때 코드 맞추기 처럼 신기합니다.





너는 내 운명이 종영 되고 “집으로 가는 길” 새로운 일일 드라마 시작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애를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 간다는 내용 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직역하면 “Perjalanan pulang ke rumah” 입니다. 현지 작가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의 마음... 세상에 속해 살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게 되는 꿈... 그 이름은 가족 입니다.

“Pelabuhan Hati”



인도네시아는 섬 나라 이기 때문에 육로 이동 보다는 배를 타고 해안을 이용해 이동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는 사람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표현을 할 때 “**Pelabuhan**” 항만. 정박소. 마음의 항 “**Pelabuhan Hati**”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여 이번 드라마의 제목으로 선정 했습니다.

여 주인공 중 수인 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아이로 부잣집에 시집가 모두의 부러움을 샀지만 어느 날 이혼하고 홀연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비밀을 품고 있는 수인은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내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연히 공항에서 첫사랑 다큐멘터리 감독 현수를 만나 이래저래 작가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옛 사랑의 힘겨운 모습에 현수는 손을 내밀 지만 마음의 문을 잠가버린 수인은

Aku harus **menata** hatiku lebih dulu...

내 마음이 정리되면 (추스리고 나면)

Saat aku bisa sedikit bernafas, aku akan meminta bantuanmu

내가 조금 이라도 숨을 쉴 수 있으면, 도움 요청 할게.라며 말하며 현수가 내민 손을 잡지 않습니다.



Menata 정리 정돈 하다 로 어근은 tata 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 추상적인 것을 조정하거나 정리할 때 사용 됩니다. 여 주인공이 말하고자 하는 “정리하다” 는 조정하다, (마음을) 추스르다 라는 의미 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추상적인 것)을 정리하거나마음을 추스를 때 **Menata** 또는 **Mengatur** 를 사용 합니다.

예)

Saya akan **mengatur** jadwal besok agar dapat hadir dalam acara makan malam.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일 일정을 조정 할게요.

Polisi itu sedang **mengatur** lalu lintas di perempatan jalan.

경찰이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Menyusun, memberes, merapikan, membenahi* 어근 (*Susun, beres, rapi, benah*)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물이나 장소(잠자리)를 정리 정돈 할 때 사용 합니다. 각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 됩니다.

Tip

교통 정리는 반드시 *Mengatur* 를 사용 합니다.

“문제는 해결 됐니?” 라는 표현 시

구어체에서 종종 *Masalahmu sudah beres* ? 라고 사용 하지만 문어체에서는 *Masalahmu sudah selesai* ? 라고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 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수인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는 수인의 동생 수미, 수인이 임신한 채 이혼한 사실을 알고 마음 아파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회로 이용해 엄마게 흥정 아닌 흥정을 합니다.

아빠에게 수인의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는 대신 조건을 제시 합니다.

Baiklah, tapi aku ingin *imbalan*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Ada sebuah dompet yang selama ini aku *incar*.

내가 갖고 싶은 지갑이 하나 있거든.



단어의 치완적 의미로 보면 요건, 조건을 뜻하는 *Syarat* 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미가 원하는 건 비밀 지켜 주는 것에 대한 선물, 댓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선물), 댓가적인 조건을 말할 때 *Imbalan* 이란을 단어를 사용 합니다.

“내가 그 동안 갖고 싶은 지갑이 하나 있거든”

수미가 그 동안 줌 (속된 표현으로, 내 것이라 주장하는) 해 놓은 가방 입니다.

Mengincar 의 단어적 의미는 겨냥하다. 겨누다(목표(대상)물을 정해 놓고) 입니다.

어떤 사물 이나 대상이 갖고 싶어 계속 눈여겨 본 것을 표현할 때 사용 합니다.

Mengidam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다, 갖고 싶어 하다 로 본 문장에 *Mengincar*를 대신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해요

한국학과 학생들의 **우리말 실력 뽐내기**

사랑과 행복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많이 질문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사랑과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사랑을 찾아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사랑을 만나서 늘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물론이지만 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거리에서 돈을 발견하거나 학교에서 시험 때 좋은 점수를 얻을 때 당연히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복은 우리 인생에서 찾았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돈을 발견하면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데 그 돈을 다 썼으면 그 마음 속에서 온 즐기는 느낌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시험 때 좋은 점수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 좋은 학점을 얻었지만 다음 시험에 떨어지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과 다르게 꿈 나라로 떠난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는 행복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얼굴에 미소가 나는 어머니는 어디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에게는 돈과 같은 재산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자기의 아이를 매우 사랑해서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부자들이 행복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돈, 재산, 신분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어떤 부자가 돈이 정말 아주 많고 힘도 많지만 친구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서 외롭기 때문에 밤에 혼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직장에서 아는 사람, 점심 때 같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하고 소중한 친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매일 만나도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없지는 않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



사스키아 사라스와띠

인도네시아 대학교 (U.I)
한국학과 3학년

다. 물론 같이 직장,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먼 곳에 살고 있는 친구,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에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행복을 찾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꼭 애인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애인에게 향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에게 느낄 상황도 있습니다. 사랑은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나온 여우가 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딱 한번만 만나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는 것과 다르게 낯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Romeo and Juliet 사랑 이야기 보다 어린 왕자와 장미 이야기에서 더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알게 돼서 마음 속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을 만나지 못 하면 그리워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아프면 걱정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하고 있고 싶은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아마 사랑에 빠졌나봅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가끔 슬픔도 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라고 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사랑은 행복을 일으키는 커녕 고민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온 질문을 대답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냐고 “네,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지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사랑과 행복을 찾았으면 인생에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행복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징계(懲戒) 관리

노무관리에는 正의 관리와 否의 관리가 있는데 正의 관리는 직원들이 바르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긍정적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포상, 진급, 교육 등이 있다. 否의 관리는 반대로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내고 지적하고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잘못을 반성하고 회사에 맞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도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밟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否의 관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징계관리라 할 수 있다.

징계관련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 사례로써는 회사에 노동법에 근거하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이며 이로 인해 문제발생시 처리지침이나 전략 없이 감정만 앞세우게 됨으로써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반적 징계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징계를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 징계의 원칙:

징계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잘못에 대한 정확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에 규정된 처분의 종류이어야 한다.

징계처분은 반드시 징계 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3) 행위와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잘못한 행위와 징계 처분이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

4) 판단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5) 절차를 지켜야 한다.

징계를 시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

6) 이중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동일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내용임. 예를 들자면 물질적 손해를 초래하는 사원과실 발생 시 징계와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처분.



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와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7) ID 미착용/회사 출근시 경비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2급 위반(1차 경고)

- (1) 구두 경고 후 위반 재발
- (2) 1개월 내 4회 지각 혹은 2회 무단결근
- (3) 상사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회사를 떠나거나 혹은 작업종료 시간 전 퇴근할 경우
- (4) 감독권을 가진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휴식이나 취침
- (5) 상사 명령 불이행
- (6)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소유의 서류나 물품을 사용할 경우
- (7) 부서장의 허가 없이 회사 설치물의 취득 및 사진촬영
- (8) 허위 서류 제출
- (9) 기한내 개인 신상변동신고 불이행

2. 징계의 종류:

위반정도	징계등급	경고장	담당부서	유효기간
1급 위반	구두경고	흰색	해당부서	3개월
2급 위반	1차 서면경고	흰색	해당부서	6개월
3급 위반	2차 서면경고	노란색	해당부서	6개월
4급 위반	3차(최종)서면경고	빨간색	인사부서	6개월
5급 위반	해고	-	인사부서	

- (10) 부주의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 (11) 근무중인 타 종업원 방해
- (12) 근무 규율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 (13) 회사 건물 또는 벽에 낙서를 한 경우
- (14) 사내에서 정치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급수(Tingkat Pelanggaran) 사례:

1) 1급 위반(구두 경고)

- (1) 1개월 내에 3회 지각 혹은 1회 무단결근
- (2) 회사가 지급한 사원ID카드와 근무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 (3) 신체, 의복, 두발, 신발 등을 단정히 유지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
- (4)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해진 안전 장구를 사용하지 않을 시
- (5) 상사의 허가 없이 작업 시간 중 근무지 이탈
- (6) 5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3급 위반(2차 경고)

- (1) 1차 경고 후 위반 재발.
- (2) 1개월 내 5회 지각 및 3회 무단결근.
- (3) 출퇴근시/식사시 타인의 ID카드로 access하거나 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
- (4) 타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건강 검진 또는 예방접종 명령을 거부한 경우.
- (5) 타당한 사유 없이 당직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회사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대출행위 및 상행위를 하는 경우.
- (7) 업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8) 업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
- (9) 지정된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고 회사에 출입하는 경우.
- (10) 회사가 발행한 문서,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 (11) 다른 사원들에게 불건전한 서적이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2)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할 경우.
- (13) 사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4) 4급 위반(3차 경고)

- (1) 2차 경고 후 위반 재발.
- (2) 1개월내 6회 지각 및 4회 무단결근.
- (3) 회사에 무기, 화염물질 등의 위험물건을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출입하려고 하는 경우.
- (4) 본인의 권한이나 직위를 남용하는 경우.
- (5) 다른 사원에게 회사의 규정, 기준 등을 위반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 (6) 고의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든 경우.
- (7)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 5급 위반(해고)

- (1) 3차 경고 후 위반 재발.
- (2) 계속해서 5일간 결근 한 행위
- (3) 1, 2, 3, 4급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현저한 위험상황을 초래하거나 큰 재산 손해를 입힌 경우.
- (4)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간접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
- (5) 범법 행위, 예를 들면 절도, 절취, 상사의 허가 없이 회사소유물 반출.
- (6) 업무태만 또는 고의로 동료나 회사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경우.
- (7) 타인으로 부터 돈, 선물, 서비스의 대가로 회사의 서류를 유출한 행위
- (8) 관리자/타 사원 및 그 가족에게 폭행, 사기, 가혹

1급 위반 (구두 경고)

2급 위반 (1차 경고)

3급 위반 (2차 경고)

4급 위반 (3차 경고)

5급 위반 (해고)

행위를 하는 경우.

- (9) 법,도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사용자나 동료를 선동하는 행위.
- (10) 마취제 또는 마약사용, 회사의 허가 없는 사내 음주.
- (11) 회사의 기밀이나 관리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사항을 유포하는 경우.
- (12) 범죄행위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13) 성범죄 행위나 도박을 한 경우.
- (14) 고의로 생산을 방해하거나 태업을 기도하는 경우.
- (15)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행위.
- (16) 허위 증명서 또는 조작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회사나 또는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 (17) 금지된 물품의 회사내 또는 회사 외부에서의 상행위.
- (18) 사내에서 싸움을 한 경우.

3. 징계 절차(Prosedur Pelaksanaan):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1급 위반:

- (1) 사원의 1급 위반시 직속상사는 해당사원을 불러 위반 사유, 근거/결과에 대해 설명 및 훈육하고, 징계를 부과한다.

- (2) 해당사원은 자술서를 작성하며 직속상사의 결재를 받아 원본은 인사팀에 송부하고 사본은 해당부서 보관한다.
- (3) 인사팀장은 인사시스템에 징계 입력전 해당 징계가 분명히 부과되었는지 확인한다.
- (4) 만약 해당 징계에 관련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사팀장은 해당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
- (5) 해당 징계가 적법하며 인사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인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일링 한다.

2) 2급, 3급 위반:

- (1) 사원이 2급, 3급 위반시 직속상사는 해당사원을 불러 위반 사유, 근거/결과에 대해 설명 및 훈육하고, 징계를 부과한다.
- (2) 직속상사가 발행하는 징계서는 해당사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증명으로써 반드시 해당 사원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 (3) 직속상사는 관련 징계서를 2부 복사하여 원본은 해당사원에게, 사본 1부는 인사팀, 1부는 해당부서에 보관한다.
- (4) 인사팀장은 인사담당자가 인사시스템에 징계 입력전 징계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한다.
- (5) 상기 징계 부과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인사팀장은 해당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
- (6) 해당 징계가 적법하며 인사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인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본은 파일링 한다.

3) 4급 위반:

- (1) 사원이 4급 위반시 직속상사는 해당사원을 불러 위반 사유, 근거/결과에 대해 설명 및 훈육하고, 징계를 부과한다.
- (2) 직속상사는 해당사원이 작성한 경위 보고서를 유첨으로하는 통신문을 작성하여 공장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인사팀에 통보한다.
- (3) 인사팀 담당자는 사건을 검토하고 해당사원을 소환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훈육한다.

- (4) 인사팀 담당자는 3차 경고장 보고서 작성 및 관리담당의 결재를 득한다.
- (5) 인사팀장이 서명하는 3차 경고장을 발행하여 원본은 해당사원에게, 1부는 노동조합에 1부는 인사팀에 보관한다.
- (6) 인사시스템에 징계 입력한다.

4) 5급 위반:

5급 위반행위는 해고 규정에서 설명함.

4. 합리적 징계관리:

1) 징계규정의 정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상기 예와 같은 징계 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 징계규정의 정립시 특수한 회사의 상황을 반영하여 규정 수립할 수 있다.
- 단, 노동조합이 있을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취업규칙 노동부 승인시 상기 특수 상황을 반영한 징계규정에 대한 노동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절차의 준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징계 사유 발생시는 징계의 근거 및 절차에 준수하여 징계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징계 이력 관리:

해당 사원별 징계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상벌, 인사고과 및 기타 인사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현지사원을 통한 관리:

징계처리시 가급적 현지사원 및 현지 인사팀장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자칫 언어소통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루피아와 세계 경제의 침체

(만디리은행 수석 경제분석가 기고)

모든 사람들은 언제 경제위기가 끝날지를 궁금해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제위기를 끝낼 것인가이다.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금액은 미국 GDP의 5.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지만 실질적인 금융분야의 개혁 없이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그 이면에서 미국은 2조 규모의 외채를 지게 될 것이고 GDP의 12%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가 0%에 근접하고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금리가 인하되는 등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각 은행들이 실물 경제로 대출하기 위한 자본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대 규모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불량 대출금은 현재 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IMF는 이 액수가 2.2조 달러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각국 은행들이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은 긴축 재정을 실시하고 대출금 회수를 서두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신용경색의 문제이며, 신흥경제국들에게 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신흥경제국의 은행들은 손해가 나더라도 자산을 매각해서 자본을 충당해야 하고, 또한 대출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de-leveraging이다. 이러한 점에서 2주전 인니 정부가 취한 3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은 적은 이자 수익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은 5년만기 10.5%, 10년만기 11.75%였다. 이러한 de-leveraging 절차로 인해 각국의 대달러 환율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달러 루피아 환율은 연초 대비 9% 하락하여 11,990루피아가 되었다.

인니중앙은행(BD)은 올해 인니 경제성장률을 작년 6.1%보다 하락한 4%로 예상했다. 물론 미국, 유럽,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니 우리에게도 아직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인니만의 추락이 아니라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평화로운 시대의 국가의 패망은 무력전쟁이 아닌 경제전쟁을 통해 찾아오게 된다.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 공급이 많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은행이 필수 송금을 제외한 달러의 구매를 월 10만달러로 제한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 하겠다.

달러의 수요는 수입량과 외채의 이자 규모에 달려있다. 수입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런면에서 무역수지의 흑자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넓은 땅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니가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니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수입품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출이 극적으로 줄어들었고(2008년 7월 125억달러 → 2009년 1월 71억달러) 수입 역시 107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니의 수입은 서비스의 수입이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2009년 한해 대략 25억달러가 물류, 보험, 이자비용 등으로 지출될 것이다. 이것은 국내은행 및



민간 기업의 대외채무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BI는 민간기업들이 올해 174억달러의 채무를 외국으로 상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과 같은 신용경색의 시대에 대외 채무 상환연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니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채는 필요하다. 만일 민간기업의 채무상환이 연기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투자를 얻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자유시장의 수요자인 미국 역시 현재 금융시장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다.

대달러 환율이 각각 4%, 6% 씩만 약화되고 외환 보유고 가 인니의 두배에 달하는 태국과 말련의 경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인니보다 해외 직접투자를 더 많이 받은 것인가? 아니면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얻은 결과인가? 아니면 더 철두철미한 외환관리를 시행한 것인가?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시장에 달러를 공급했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질문은, 과연 우리의 수출대금이 모두 온전하게 국내 은행으로 입금되었는가이다. 인니 수출항에서 통계된 수출금액이 모두 인니로 입금되었는지, 또 그 금액이 정확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우리의 숙제이다.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4

인건비 절감,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와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지금,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27.7%가 최근 3년간 보유기술 및 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88.9%가 대처곤란 등의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인 뉴스는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유출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한국산업기술평화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제 4 장 인니에서의 기술유출시 대응방안

1.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의 비교

□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의 차이

- 특허, 실용신안 등 다른 지적재산권은 창조성, 신규성이 요구되나, 영업비밀의 경우 창조성이나 신규성이 중요하지 않음

- 영업비밀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 되면 법적으로 자동으로 보호를 받고 별도의 등록이 불필요하나, 지적재산권의 경우 소정의 출원절차를 거쳐 등록을 해야 함
- 영업비밀의 경우 일반대중에게 공개가 되면 영업비밀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지못하게 되나 대부분의 다른 지적재산권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영업비밀의 경우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 더 이상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특허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경쟁사 혹은 제3자가 보다 새로운 발명을 하여 특허를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발명을 도태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다른 사람이 모방이나 발전시키기 어려운 발명은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쉽게 분석, 이해, 적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함

〈표4-1〉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구 분	영업비밀	특허
보호대상	▪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경영상, 기술상의 모든 정보	기술적 발명
보호조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신규성, 창조성, 실용성
보호기간	▪ 비밀로써 관리되는 한 무한	설정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휘, 출원일 후 20년간 보호
공개여부	▪ 비공개를 전제로 보호	공개를 전제로 보호

2. 영업비밀 침해

□ 영업비밀의 개념

- 인도네시아 영업비밀 관련 법률(2000년 법률 제30호) 제 1조 제1항은 영업비밀에 대해
 - 공중이 알지 못하고(비공지성),
 - 권리자에게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경제적 유용성)
 - 권리자가 비밀조치(비밀관리성)를 취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

□ 영업비밀의 범위 및 요건

* 모든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법에 의한 범위와 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영업비밀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1) 영업비밀의 범위

- 생산 혹은 제조 방법
- 가공 방법(식음료 처방, 제약처방, 한방처방, 화공약품 제조법 등)
- 판매 방법(거래처 명단, 판매가격 등)
-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혹은 경영상의 정보

2) 영업비밀의 요건

- 비공지성
 - 해당 정보가 소유자 혹은 특정의 제한된 사람만이 알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이 알지 못해야 함
- 경제적 유용성
 - 해당 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 비밀관리성
 -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소유자 혹은 당사자가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데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영업비밀 권리의 이전 및 라이선스

- 영업비밀 소유자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주거나, 혹은 타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1) 권리의 이전

-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는 상속, 기증, 증여, 계약 혹은 법으로 허용되는 다른 방법들에 의하여 이전이 가능함
-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의전은 반드시 지적재산권청에 등록되고, 영업비밀 관보에 발표되어야 함. 등록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의전은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

2) 실시 계약

- 영업비밀의 권리보유자는 실시계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의 권리보유자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실시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다른 3자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실시계약은 반드시 지적재산권청에 등록되고 영업비밀 관보에 발표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실시계약은 보호받지 못함
- 영업비밀 실시계약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간접적 손해를 입히거나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경우 실시계약에 대한 등록이 거절됨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영업비밀 침해는 개인이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영업비밀 관련 비밀유지계약 혹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함
- 실정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영업비밀 침해가 아님
 - 치안, 국방, 보건 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영업비밀을 누설 혹은 사용한 경우
 -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한 경우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 소송

- 영업비밀의 보유자 혹은 실시권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모든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루피아(한화 약 3,700만원)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과 지적재산권 관련 부처의 공무원에게 있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

2) 소송 이외의 해결제도(ADR)

- 소송제기에 의한 해결 이외에 재판 이외의 방법을 통한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활용할 수 있음
- ADR의 특징
 - 신속하고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임
 -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을 들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짐
 - 소송 절차에 의하여 공개될 수 있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가능
 -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분쟁의 조기해결 가능
 - 소송의 경우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제적 해결방법이나 ADR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함



더욱 깊어진 인연, 인도네시아 문화의 여정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

인니 문화연구회 리더 사공경씨가 4년전 한인회 문화탐방을 운영하면서 펴낸 '인니문화산책 -1'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에 이어 올 3월 그 두 번째 시간인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를 펴냈다.

저자는 보고르 Bogor, 뽀팍 Puncak, 반둥 Bandung, 짜위데이 Ciwidey, 가룟 Garut, 짜르본 Cirebon, 꾸닝안 Kuningan, 온러스트 Onrust 등 자카르타를 넘어 좀 더 인간냄새와 자연의 향취가 배어나오는 지방으로 향했고 그 애정과 정열의 깊이를 물씬 풍겨냈다.



저자 사공경 | 신국판 | 451쪽

도서 구입처 : 무궁화 슈퍼, 뉴서울 슈퍼, 한국판

바람의 지문

얼마나 많은 바람이 다녀갔을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다녀가야

그곳에

산이 솟고

강이 흐르고

일가를 이루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서부자바의 오래된 정원에서

새로운 느낌표를

나무의 주름으로 새겨진 바람의 지문

강물에 실려 반짝이는 바람의 지문

을 읽네

새들의 부리에서 소리로 살아나는 바람의 지문

꽃잎의 입술에 색으로 찍힌 바람의 지문

을 읽네

고마워라 바람의 지문을 풀어

그들의 문자를 읽게 해주신 이

고마워라 서부자바의 오래된 정원을

한 권의 책으로 엮으신 이

세상은 한 권의 책이라 했지만

근시안 내 눈은 읽을 수 없었네

바람의 지문을 알 수 없었네

우리 이제 떠나도 좋으리

서부자바의 그 오래된 정원으로

그곳에서 그들 일가에 섞여

바람의 지문이 새겨놓은 문자를 읽으며

새로운 물음표를 떠올려도 좋겠네

여기, 그곳에 지문을 풀어놓은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시인 박정자

〈서부자바의 오래된 정원〉출판을 기념하며



통찰력 사전 - 사마천의 생각수첩

저자 김원중 | 출판사 글항아리

하루에 한 편만 읽어도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책!

『통찰력 사전』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3백여 편의 명언을 엄선하여 수록한 책이다. 처세의 규범에 대하여 ‘투시, 차이, 통찰, 의지’에서부터 마지막 ‘세태’에 이르기까지 36개의 장으로 구별하여 놓았다.

천자가 사망상여가 올린 글에 화답하는 노래를 지은 것 가운데 일부인, ‘일어날 때 반드시 쇠락할 것을 염려하고, 편안할 때는 반드시 위태롭게 될 때를 생각하라’처럼 명언뿐만 아니라 경구와 격언, 민가, 속담, 어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대범하라’ ‘인재가 등용되는 추이를 보라’처럼 인물들의 삶에서 비롯된 지혜와 통찰의 힘이 한 줄을 통해 짧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세월이 많이 흐른 현대 사회의 각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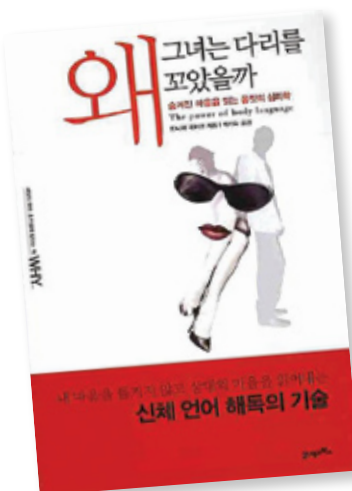
스틱 - 뇌리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의 힘

저자 칩 히스, 댄 히스 | 역자 안진환, 박슬라 | 출판사 웅진윙스

뇌리에 딱 꽂히는 스틱커 메시지의 6가지 법칙!

제품을 팔기 위한 광고 메시지, 재미있는 이야기 등 세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메시지가 있다. 수많은 메시지 중 왜 어떤 것은 쉽게 잊혀지고, 어떤 것은 뇌리에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는 것일까?

Simplicity(단순성), Unexpectedness(의외성), Concreteness(구체성), Credibility(신뢰성), Emotion(감성), Story(스토리) 등 스틱커 메시지 창조의 6법칙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스틱커 메시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신이 만드는 메시지에 유전적인 변형을 가해 타고난 창의성과 상관없이 어떤 메시지도 사람의 뇌리에 착 달라붙게 만든다.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 - 숨겨진 마음을 읽는 몸짓의 심리학

저자 토니야 레이먼 | 역자 박지숙 | 출판사 21세기북스

표정과 행동의 의미를 읽는 기술!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 | 숨겨진 마음을 읽는 몸짓의 심리학』. 다른 이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신체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실용서이다. 특정한 몸짓이나 얼굴 신호, 자세, 몸의 움직임 등에 숨어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으며, 진심과 거짓, 가식적인 미소와 참된 미소 등에 대해 구분할 수 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해서 다가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즐기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짧은 시간 내에 고객에게 신뢰할 만한 판매원이라는 느낌을 줄 수는 없을까? 미국 전 지역에 널리 알려진 신체 언어 전문가 토니야 레이먼은 상호 의사소통 분야의 회색 지대로 남아 있던 신체 언어의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MOVIES

인사동 스캔들

세상을 베끼는 복제 기술자들의 그림전쟁이 시작됐다!

400년전 사라졌던 한 그림의 복원 프로젝트가 전국민의 관심 속에 세상에 공개된다. 복원에 성공한다면 한국 최고가로 경매될 것이 틀림없을 안건의 '벽안도'. 그 그림을 손에 넣은 미술계의 큰 손 갤러리 '비문'의 배태진(엄정화) 회장은 신의 손을 가졌다는 복원 전문가 이강준(김래원)을 스카우트하고 400억짜리 벽안도 살리기 작업에 나선다. 그러나 귀신 같은 손놀림으로 무엇이든 베껴내는 이강준과 원하는 그림이면 사기든, 살인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손에 넣고 마는 배태진의 마음 속에는 서로 다른 속셈이 존재하는데... 프로젝트의 끝, 복원의 마지막 붓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벽안도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날수록 슬슬 속내를 비치기 시작하는, 대한민국 미술계의 숨은 고수들이 등장한다. 또한 그들을 추적하는 서울시경 문화재 전담반 강형사와 최하경 형사의 끝을 알 수 없는 그림 전쟁 한 판! 속이려는 자와 속는 자, 믿는 자와 배신하는 자, 지키려는 자와 가지려는 자! 본 것을 믿지 마라. 당신이 본 모든 것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 벽안도를 둘러싼 통쾌한 사기극의 한 판 끝은 어디인가?



13구역 : 얼티메이텀 Banlieue : 13 Ultimatum

정부의 철저한 격리로 범죄자들과 타락한 경찰의 공간이 되어버린 13구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법도, 정의도 없는 그 곳을 지배하는 5개의 조직은 각자 자신의 구역을 삶의 터전으로 위험하고 이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한다. 어느 날, 13구역에서 경찰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노한 국민들은 13구역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여론으로 들끓고 13구역은 폭동에 휩싸인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의로운 경찰 데미안과 13구역에서 희망을 보며 살아가는 레이토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정부의 은밀한 계획임을 눈치채고, 곧바로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알 수 없는 정부 세력에 의해 쫓기게 된다.

이제 목표는 단 하나! '살아남기 위해선 24시간 내에 혼돈에 빠진 13구역을 구하라!'

정부도, 경찰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들은 13구역의 5개 조직과 의기투합, 정부의 음모에 맞서 멈추지 않는 액션 본능을 폭발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13구역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액션은 단 1초도 멈추지 않는다!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 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기

● 경제연구소, 루피아 환율 달러당 10,000 루피아 이하로 강세 예상

다나렉사 경제연구소의 Purbaya 수석 경제 분석가는 향후 몇 달 내에 달러당 루피아 환율이 10,000 루피아 이하로 하락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동 경제분석가는 미국이 국내 사용을 위해 대규모로 달러를 매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미국은 신규 달러화를 발행하여 수요를 충족할 것이므로 향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동 경제분석가는 루피아화가 지역내 다른 통화와 비교하여 저평가 되어있으며 적정 환율은 달러당 9,000 루피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투자자 매수로 자카르타 종합주가지수 3.4% 상승

3.27 외국인 투자자들의 3,000억 루피아에 가까운 순매수로 자카르타 종합주가지수가 3.4% 폭등해 심리적인 저지선이었던 1,400을 넘어 1,406포인트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아시아 시장, 특히 인니, 중국,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지금 이들 시장에 투자할 경우 환율과 주가상승으로 인한 2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중앙은행,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영향력 감소 필요 언급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Boediono 중앙은행(BI) 총재는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 감소를 위해 인니 역시 세계적인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이 채택될 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IMF가 국제통화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인출권(SDR)의 사용확대를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SDR은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독일의 마르크, 프랑스의 프랑, 일본의 엔화의 환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각국이 SDR 보유분을 IMF에 위임하면 다른 통화간의 무역, 금융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SDR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유로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달러화의 역할은 매우 크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한 교역에 관한 대부분의 법령과 규정은 달러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

만일 정부와 중앙은행이 달러화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다면 자율화에 맡겨져 있는 외환 관리를 좀더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외환 유통에 관한 법률을 수정해야 하며 환율시스템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재무부장관, 시중은행 금리를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발표

중앙은행이 3.4부로 기준금리를 7.75%로 인하한 이후 각 기업체 및 경제인단체들은 평균 12.7%에 달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10%까지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현재 시중은행의 재정상태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장관은 비교적 상황이 좋은 국영은행들은 이미 대출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하고 이러한 국영은행의 금리 인하가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개발계획청 발표, 인프라 부문 경기부양책 관련 발표

Paskah Suzetta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장관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중 인프라 분야에 투입되는 12.2조 루피아가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닌 2010 국가사업계획(RKP)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는 2009.4월에 인프라 지원금을 투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다나렉사 경제연구소 3/4, 4/4 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 경고

Purbaya 다나렉사 경제연구소 소장은 올해 3/4분기나 4/4분기 중에 인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동 소장은 2008.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미국은 이미 2008년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 소장은 올해 치러지는 총선, 대선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각 정당으로부터 시장에 유입될 자본은 긍정적인 면이나 반면 투자자들은 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투자를 미루게 될 것이며 이는 부정적인 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 소장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연말에는 금리가 6.5%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소식 / 개발관련 사항

● Bappenas, 인프라 부문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주안점 발표

Dedy Bappenas 인프라 담당 차관은 현재 인니의 인프라 부문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하며 정부투자가 50%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표하고 인프라 부문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차관은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정부의 능력배양, 인프라 투자관련 규정과 기관의 정비, 투자 안전 보장 및 투자자가 손쉽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차관은 모노레일 사업을 예로 들어 예상 승객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하며, 현재 인프라 투자를 위해 BRI 은행에서 제공하는 단기대출 보다 강화된 10년 만기의 장기대출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 차관은 200억불 규모의 82개 신규 인프라 대상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2월말 Paskah Suzetta, Bappenas 장관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부통령, Natuna 광구 개발자 선정에 외국 간섭 거부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있는 Jusuf Kalla 부통령은 Exxon Mobil이 Natuna D Alpha 광구의 개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개발자를 선정하는 것은 인니이며 어떤 나라도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통령은 2005년에 동 광구에 대한 Exxon Mobil의 개발권은 종료되었으며 현재 모든 나라를 상대로 개발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협의 대상에는 Shell, Royal Dutch, Exxon Mobil Oil, Petro China, State Oil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 공기업부 발표, 광업법 관련 조례안 준비중

공기업부는 부처 산하 광물개발 공기업들

을 통해 개정 광업법의 후속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Sofyan Djallil 공기업부 장관은 2009년 개정된 광업법이 국가발전을 위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법의 빠른 시행을 위해 조속히 조례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 작성에 참여한 공기업은 PT Aneka Tambang(석탄), PT Tambang Timah(주석), PT Batubara Bukit Asam(석탄)이며, 현재 준비중인 4개 조례는 각각 광업지역, 광물 및 석탄 회사의 활동, 정부의 지도 및 감독, 복원과 개발 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광업법에 의거 후속 조례는 개정일(1.12)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완료 되어야 하나 정부는 이를 6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가격 하락 예상

Darmadi, ERA 대표이사는 현금자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1/4분기 이후부터 주택을 매도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가격이 2/4분기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은 연말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Titra 인니 부동산중개업회장은 미국의 주택 신용도가 폭락하면서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의 태도 역시 변하고 있지만 주식투자보다는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단지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을 기대하며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동 회장은 1~2년 내에 현금자금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올해가 부동산 구입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에너지광물부 발표, 땅구지역 LNG 5월 선적 시작

Evita 에너지광물부 석유가스총국장은 땅구지역의 LNG가 순조롭게 생산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로 2009.2월 선적은 못했지만 2009.5월에 수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목적이 중국인지 한국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R Priyono BP Migas 사장은 생산된

LNG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내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나머지 분량은 수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Natuna D Alpha 광구나 동부 깔리만탄 광구에서 Chevron이 생산하고 있는 가스는 생산단가가 높은 관계로 국내에 공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지표 동향

● 정부, 34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민간경제협력 발표

Paskah Suzetta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장관은 인프라 분야 민간경제협력책자(PPP Book, Public Private Partnership Book)를 발표하고 본 책자에 총 87개, 340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PPP Book에 의하면 각 프로젝트는 다음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다.

- ① 시행준비 완료 프로젝트 (8개, 45억불, 즉시 시작 가능)
- ② 선행 프로젝트 (18개, 30억불, 타당성조사 및 법률·재정 검토완료)
- ③ 중요 프로젝트 (61개, 265억불, 장소검토 완료)

총 87개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공항 2개, 터미널 2개, 항구 5개, 철도 15개, 고속도로 32개, 상수시설 20개, 쓰레기 및 하수처리 2개, 에너지 8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Bappenas는 만일 인니 민간은행들이 본 프로젝트를 위해 자본을 제공할 수 없다면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FC는 본 프로젝트들을 위해 차관뿐만이 아닌 직접투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인니 민간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자본의 10~20배가 될 전망이다.

● 공공사업부, 2010~2014 국가 중기발전계획 작성 중임을 발표

공공사업부는 올해에 2004~2009 국가 중기발전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0~2014 국가 중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계획 작성시 지방정부의 단순한 추

천 보다는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효과를 검증 한 후 진행 우선순위를 매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계획에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사업부, 우선추진 12개 프로젝트 발표

공공사업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추진 12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한 공공사업부는 본 프로젝트들의 빠른 진행을 위해 공공사업부에 배정된 6.6조 루피아 규모의 경기부양책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추진 12개 프로젝트

동부 수마트라 간선도로, 라캇 - 뜨빙끼도로, 판중 뿌리옥 고속도로 진입로, 간찌 - 빠자간 고속도로, 보고르 순환 고속도로, 땅그랑 쫓 모피아 고가도로, 메단 암빨라스 고가도로, 수라마두 교량, 마하갑 홀루 교량, 마카사르 고가도로, 마나도 - 마뽕웃 도로, 마노파리 - 소롱 도로

이중 수라바야와 마두라를 잇는 교량인 수라마두 교량의 경우 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usuf Kalla 부통령, 시투 긴동 댐 재건조 관련 언급

3.26 오후부터 자카르타 일대에 지속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반뜰주 찌뿌땃 소재 시투 긴동 댐이 붕괴되었다.

본 댐은 네덜란드 시대에 축조되어 여러차례의 보수를 했으나 폭우로 인한 수위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댐 붕괴가 03:00 새벽에 발생하여 미쳐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97명이 사망에 103명이 실종상태이나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usuf Kalla 부통령은 10월까지 본 댐을 다시 축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대규모 주민 이동 명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정부의 보상을 받게되며 가옥 파손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루피아 ~ 최대 3,000만루피아 까지 지급받게 된다.

● 산업부, 정부조달 470개 품목 국산품 사용 의무화

산업부는 국산품 사용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의거하여 정부 조달용 470개 제품에 대한 국산품 사용을 의무화 했다.

상품 및 서비스 등 21개 품목군으로 구분된 470개 품목에는 신발, 의류 및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Fahmi Idris 산업부 장관은 향후 국산품 사용 의무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금번 정책을 심각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에게 까지 국산품 사용 의무화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섬유의 경우 인니 국내시장은 연간 130만톤의 섬유를 필요로 하나 이 중 43만톤은 수입품이고 32만톤은 밀수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의 의도대로 모든 공무원이 국산 제복을 착용할 경우 밀수 근절과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 장관은 자동차의 경우 토요타사의 끼장 이노바의 국산화가 85%까지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끼장 이노바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했다.

● 국가개발계획청, 2009년 수출성장률 -6%로 예상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는 2009년 인니 수출성장률을 -6%로 예상했다.

Bambang Prijambodo Bappenas 거시계획 국장은 석유 및 비석유,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수출가격 및 수량이 하락할 것이며, 특히 비석유 부문 상품수출은 2008년 1,080억 달러에서 20%(216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 국장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아시아 주요 수출대상국인 태국과 싱가포르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각 나라의 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루피아화의 약세로 기대되던 관광산업 역시 각 나라 국민의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동 국장은 2009년 투자액이 전년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역시 '07-'08년 증가치인 11.9% 대비 매우 감소한 수치이다.

국제관련 사항

● 인니-방글라데시, 자금세탁 방지 MOU 서명

인니 PPATK(Indonesian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테러자금이나 부정부패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은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게 되었다.

MOU에 의하면 향후 양국에서 공유되는 자금세탁의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며 재판시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 또한 해당국가의 사정에 따라 정보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 방글라데시는 PPATK의 29번째 협력국가 되었다. 얼마전 PPATK는 브루나이와 자금세탁 방지관련 MOU를 작성했고 미국 및 기타 국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2003년 이후 PPATK는 613건의 자금세탁을 경찰에 고발했고 31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노동자송출보호청, 2015년 일본에 간호사 60만명 추가 필요 예상

Jumhur Hidayat 노동자송출보호청(BNP2TKI) 청장은 2015년에 일본의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60만명의 추가 간호사(간병인)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청장은 2008년 일본으로 만명의 인니 간호사를 송출할 당시 일본은 더 많은 간호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하고 이들 간호사들이 현재 2,000만루피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동 청장은 단순노동자 송출보다는 전문인력 송출이 국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영어교육 등을 통한 전문인력을 송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50년에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 고령화로 적어도 6,000만명의 추가 간호사(간병인) 노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신을 러무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관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글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4224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델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컨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동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아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기준	250 6532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대감집	726 4356
대장금	551 4311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동해	725 2856
또래오래 치킨(버가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끌라빠가딩	4585 4316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가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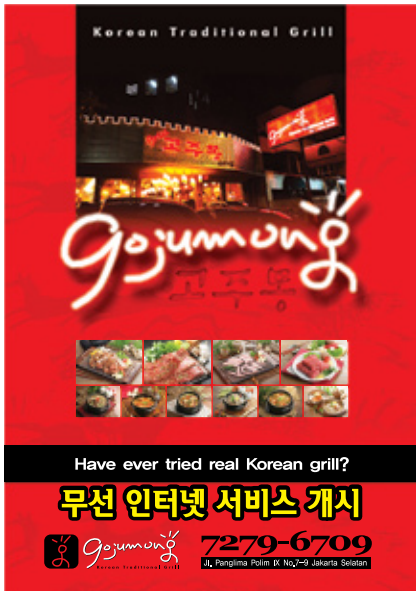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Korean Traditional Grill

Gojumeong

Have ever tried real Korean grill?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개시

7279-6709

UL Panglima Polim K No.2 Jakarta Selatan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심리검사 학습능력 향상 진로탐색

知彼知己 百戰不殆

知己 - '자신'을 아는 방법.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에 있습니다. 인지 발달 수준 학습 스타일 직업 흥미 학습 전략과 기술 등 자녀의 성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전문심리검사와 학습케어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 K-WISC / K-WPPSI
성격유형검사 MBTI / MMTC
직업 흥미진로성숙도 & 직업적성검사

ALSA 청소년 학습전략검사
LSAT 학습기술진단검사

자기관리 학습법

021-546-4531 | 0813-8082-8282

리본캐리리지 아파르투라 아파트 A동 로비 G호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리랑(리벤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횡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칠보산	4585	1161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벤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A 갈비	7278	0550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	------	------

시티안경원	726	5009
-------	-----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라스	520	4181
트라스 우파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벤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한컴 5435 3007
www.indoweb.org 7082 0051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쉴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벤카라와찌)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광고문의

521-2515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머르타나디(가구점) 720 452
DEDO RAYA UTAMA 704 333
G.B.I 발론기구 288 507
LAPAMA 레프팅



4월 공지 사항



한국대사관 관세관 부임 안내

최근 인니 한국대사관에 이득수 관세관이 부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주재국 세관당국, 무역부, ASEAN 사무국 등과 Contact Point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진출 우리기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통관애로사항 적기해소 지원, 관세관련 상담 및 민원해결 지원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등 관세제도 상담
- 수출입 시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마찰 해소지원
- 특히 조정관세부와 관련 인니 세관당국 간 조정역할 수행

○ 한-아세안 FTA 활용제고 지원

- 원산지 규정, 양허세율, 특혜통관제도 등 상담
- 원산지 증명서(C/O) 발급관련 애로해소 지원 및 상담
- FTA 특혜통관 시 애로·마찰해소 지원 및 FTA 비즈니스 모델 상담

○ 기타 관세 및 한-아세안 FTA 활용 관련 애로 및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향후 한인회, KOTRA, 한인 상공회의소, 통관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예정 (「현지 통관협의체」 구축, 설명회 개최 등)

□ 연락처

TEL : 62-21-520-1915
HP : 0811-993-1325
FAX : 62-21-525-4159
E-mail : leeds@customs.go.kr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콘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변호사)
(MP.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나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2009년도 부인회 취미활동반 안내

부인회에서 2009년도 취미활동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설된 반들도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하고 알찬 인도네시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영교실	일시	강사	기간	장소	연락처
플룻	월요일	유은영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69-2166
	10:00-11:30				0812-924-1860
영어	화요일	차지환	3월 17일	부인회 사무실	720-9985
	10:00-11:30				0812-1872-9003
꽃꽂이	수요일	이승희	3월 18일	부인회 사무실	5292-1067
	10:00-12:00				0813-8899-9175
서예	목요일	손인식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39-7153
	09:00-12:00				0815-936-9114
컴퓨터	목요일	김미혜	3월 19일	레드토마토	426-2918
	10:00-12:00			세노빠띠점	0815-9590-436
유화반	금요일	김수영	3월 13일	부인회 사무실	750-3006
	10:00-12:30				0858-8543-6348
스포츠댄스	토요일	Melly	3월 14일	부인회 사무실	0816-160-5911
	15:00-17:00				
	일요일	Melly	3월 15일	부인회 사무실	0817-155-864
	16:00-18:00				

부인회 연락처(총무) : 박성영 0816-160-5911, 류경희 0817-155-864, 이효순 0817-665-0959

재 인도네시아 한국부인회 회장 홍미숙

범죄신고 관련 전화번호 변경 안내

인도네시아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범죄신고 관련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2 (인도네시아 공통번호)
 - 일반전화, 핸드폰으로 신고가능
 - 신고시 지역경찰서 또는 파출소 연결
 - 기존 110은 사용 불가
- 1717 (자카르타 시경 관할내에서만 가능)
 - 자카르타 시경에서 운영
 - 단문 문자메세지 전송가능
 - 범죄신고 이외의 일반 불편사항 신고 접수

블루버드 택시 안전유의

최근 경기악화 등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었던 블루버드 택시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스나안시티에서 블루버드 택시를 이용한 교민이 운행도중 택시 기사가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와 통화 후 뒤따라온 4명의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금품을 강취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때에는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등을 확인하시고 야간에 부녀자 혼자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 ◆진주 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첨부)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 0816-1390-333

대한항공 하계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9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
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10+1	매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45	20:45	매일
덴파사르 > 인천	KE630	03:10	11:15	일/월
		01:20	09:25	화~토
인천 > 덴파사르	KE629	18:05	00:01+1	월~금
		19:50	01:50+1	토/일

2. 기간: 2009. 3. 29~

또한 2008년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
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
선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습니다.

-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3번 : 영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4번 : 중국어 서비스
- 5번 : 일본어 서비스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84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Cumi Telor Bakar Honey Souce



Udang Galah Bakar Honey Souce



Ikan Bakar Malaka



Kepiting Telor Singapore Chili Souce



Tahu Telor Merapi

매콜달콤 다양한 소스 & 최고 퀄리티 씨푸드
맛깔스럽게 장식된 씨푸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omp. Tendeon Square Unit 1-1A,
Jl. Captain Tendeon (Jl. Wolter Monginsidi) No. 122-124
Petogogan, Kebayoran Baru - Jakarta Selatan 12170
telp. 021 7278 9777 (hunting) fax. 021 7278 6538
e-mail. doceanresto@yahoo.com